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83 1982년3월29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March 29, 1982

MAR 3 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캐나다, 「총칼 없이」 새 헌법

영국의회 완전 통과

4월19일 선포예정

(런던=영국)캐나다 헌법에 대한 영국의 권리와 의무는 끝장났다.

영국상원은 25일 제3, 4독회를 마치고 캐나다 고유헌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상중의 하나가 1835~38년 캐나다 총독이었던가스포드 상원의원이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읽다가 인디안의 권리부문에 이르자 중단을 요구하는 소리가높아졌다. 귀족들로 구성된 상원의원들은 캐나다 헌법안보다는 섹스서적, 잡지, 필름등「포노그래프」문제에 더 관심과 흥미를 보여 가스포드의원의 연설은 147대15표로 강제중단됐다.

투표직전 캐나다 시민이며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마이클·울프씨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이 헌법안은 인권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라"고 외친 것과 모리스의원이 간단히마지막 발언을 한 외에는 토의가 종결되어 헌법안은상원마저 신속히 통과된것이다.

작년12월 영국국회로 이송된 캐나다 헌법안은 통과까지 하원에서 4일, 상원에서 단3일 걸렸다. 이제 남은것은 엘리자베드여왕 또는 캐나다총독이 오는 4월19일 오타와에서 있을 새 헌법안선포기념식에 참가하는 것뿐이다.

이로써 캐나다는 무력충돌이나 혁명없이도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을 사상처음 가짐으로써 영국의회 동의없어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영국의 원수인 여왕을 캐나다의 원수로 계속 받드는 입헌군주제에는 변함이 없다.

영국의회는 독립국가인 캐나다의 헌법제정및 개정권을 영국이 계속 갖는것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식민지시대 유산이라고 판단. "캐나다국민이 원하면 영국의회가 만든 영국북미법(BNA)을 대신할 캐나다 고유헌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취했었다.

한국의 경우 헌법이 바뀔 때마다 무력이 동원됐다. 대체적으로 정치후진국에서의 헌법개정은 이번 캐나다 경우와 달리 정치적 소동과 총칼을 수반했다.

한편 오타와연방 정부는 헌법안에 끝가지 반대한퀘벡주정부와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최초의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 기쁨을 나누는 산모 킷여인과 아버지 이언·랜킨씨 쌍둥이 시험관아기 탄생을 보도하려는 언론의 경쟁도 치열, 토론토·선지는 사전에 이언·랜킨씨와 비밀계약을 맺어 사진및 기사면에 서 다른 신문을 단연 앞질렀다.(토론토·선지 특종사진)

부쉬 미부통령 방한

한미수교 백주년기념 위해

(워싱톤25일=연합)조지·부쉬 미국부통령이 4월25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25일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고위급인 부쉬부통령의 방한은 공식적인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다.

백악관 공보국장 데이빗·저겐씨는 유창순 국무총리의 초청을받은 부쉬부통령은 방한중 한·미 우호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수교 1백주년 기념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부쉬부통령은 유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회담할 것이며, 주한미군 불철수및 경제, 문화협력강화를 재다짐하는 양국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후 최초의 외국원수로 전두환 대통령을 워싱톤서 만났었다.

부쉬부통령은 4월중 한국이외에 일본,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등 태평양 각국을 순방한다.

인공온천 곧 등장

광석약수도 개발

캐나다에서도 효력과 성분면에서 한국의 유성온천과 흡사한 인공온천을 즐길수있다.

토론토북쪽 60마일지점 씸코(Simcoe)호수 부근에 자리잡은 서튼(Sutton) 마을에 건설중인 이 온천은 류우머티즘(Rheumatism)과 관절염(Arthristis)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아주 좋다고 한다.

이 온천의 주인공들은물리치료전문의 샤쯔여사(Dr.Szasz)와 광석가가따야마씨.

샤쯔여사는 한국, 일본및 전세계에 산재한 이름있는 온천과 약수에 조예가 깊으며 캐나다 동부지역에자연온천이 없음을 발견, 같은 생각을가진 가따야마씨와 본격적인 인공온천건립에 착수했다.

온천과함께 약수도 연구한바있는 가따야마씨는 최근 한국을 10여차례 방문, "한국약수의 효능은 세계제일이다"고 판단했다.

그는 처음에 한국약수를 직수입하려 했으나 약수내에있는 방사성(Radioactive)작용에의해 물을 병에 보관했을경우 중요한 요소인 라돈(Radon)이3 일전후로 기능이 상실, 잘못하면 해까지 끼칠수있어 약수수입을 포기하고 대신· 보통물에다 넣으면 약수가되는 특수광석(Mineral Stone)을 개발했다.

거의 평생을 쓸수있으며 일본, 한국, 이태리교포들사이에 널리 판매되고 있다는 이 광석케이스의 가격은$190.

교포 김시몬씨가 총판매 책임자로 있다. 전화: 299－1888.

사 고

「독자의 광장」 신설

〈토론토 한국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신속한 뉴스, 정확한 정보·품위있는 교양기사로 권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저희편집진은 독자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동의터전을 넓히기위해「독자의 광장」을 신설했읍니다. 독자여러분의 제언, 편집자에게 보내는글, 독자문예, 혹은 독자들끼리의 공개서신교환등 신문에 실리고 싶은글이있으시면 2백자 원고지 3매이내로 쓰셔서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토론토 한국일보 편집부〉

북미 최초 시험관 쌍둥이 탄생

온타리오주서, 비용 $1만5천

북미최초의 남자 쌍둥이 시험관 아기가 25일 온타리오주 옥빌 트라팔가병원에서 탄생했다.

체중 6파운드15온즈와 6파운드 4온즈의 건강한 두 아기는 예정일보다 2 주일 앞선 이날아침 9시44 분과 9시55분 각각 태어나 산모 킷·랜킨씨부부및 영국의패트릭·스텝토와 로버트·에드워즈의사가 이끈 의료진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애초에 의료진들은 초음속 테스트결과 남자·여자의 쌍둥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언·랜킨(38)씨와 재혼한 산모 랜킨(35)여인은첫번 결혼에서나은 1남1녀출산이후 두번의 자궁외 임신으로 나팔관이 파열됐고 더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낙담중 78년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를 탄생시킨 스텝토의사와 접촉, 시험관아기를 갖기로 했었다.

스텝토씨는 난자와 정자를 각각채취, 특수시험관에서 수정시켜 생후2.5일 된 수정체를 자궁에 다시 이식시키는 시험관아기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그는 킷여인에대한 첫번째 시도에서 실패, 두번째는 성공률을 배가시키기 위해 두개의 수정란을 여인의 자궁에 이식시켰기 때문에 2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다. 랜킨여인은 정상유도분만을 했다. 시험관 아기는 나팔관이 막히는등이유로 정상적 잉태가 불가능한 여인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랜킨부부가 시험관아기를 갖는데 든 의료비는 약 15,000이 [illegible]국체류비만1만달러였다. 랜킨부부는 정자, 난자 채취및 수정체이식을위해 수차례 영국에 갔었다.

북미에서는 작년 12월미국서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태어났으나 쌍둥이는 이번 캐나다가 처음이다.

온주에서도 곧가능

수백명이 기다리고 있어

온타리오주에서만도 부부가 주내병원들이 시험관아기를 탄생시킬수있는 시설을 갖출것을 기다리고있으며, 머지않아 토론토, 런던, 오타와에서 이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마운트·사이나이 병원의 시험관아기를 낳기를 기다리는 건수만도 3백건이나, 현재로는 토끼에이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관아기는 안구역제와 윤리적, 의학적인 면(정자, 난자, 채취, 이식과정에서 세포를 파손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었다.) 에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있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200만불 돌파기념 특 별 봉 사 이 율 봉사기간 : 3월20일까지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금주의 행사▷

(3월29일～4월4일)

◇29일(월) 하오7시 한인회관 확장이전모금위원회 구성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1일(금)～4일(일) 하오7시30분 춘계부흥성회
주제 : 복음으로 열매맺는 교회
강사 : 최양선 목사
곳 : 런던한인교회(530 Topping Lane, London)
연락처 : (519) 473－5257

◇2일(금) 하오7시 스키협회 창립총회
곳 : 클링톤하우스(693 Bloor St. W)

◇3일(토) 바자회
곳 : 중앙장로교회 친교실 (Bathurst St.)
연락처 : 961－8361

4일(일) 하오3시 천주교 노인회주최 강연회
연제 : 마음의 병과 믿음
강사 : 김지일 박사
곳 : 세인트·폴 성당 강당
연락처 : 863－0415(천주교노인회)

533 2361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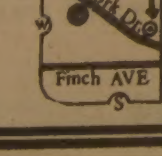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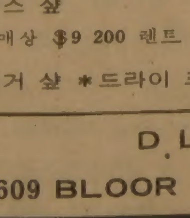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322－5147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든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 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 P $120 000 아스킹 $ 210,000
②주매상 $10 000이상 아스킹 $130 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 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 500 아스킹 $65 000 렌트 $500(Mon) 리스 : 11½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샾
①주매상 $9 200 렌트 $3 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샾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샾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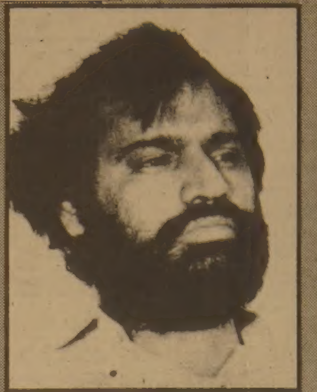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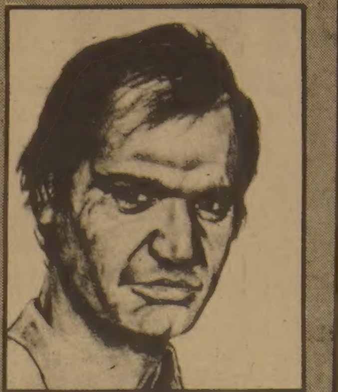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법정살인극 용의자 삼라를 찾아라!

캐나다 전국에 삼라수배령을내린 경찰은 사진과함께 몽타쥬 스케치를 발표했다. 삼라(34)는 15일 온타리오주 최고법정에서 판결에 불만 변호사등 2명을 좌죽이고 1명에 부상을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왼쪽은 삼라의 본래모습이며 오른쪽은 터번을 벗었을때의 사진과 수염을깎았을때의 상상화이다. 용의자 삼라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흉터와함께 뭉그러져 있으며 왼쪽눈위에도 상처가 있다.





失明보상 5百 50萬弗받은 수지·김女人

"있다", "없다"…血肉갈등

서울 두친동생 "정성껏 모시겠다"에 "형제없다" 냉정하게

◇… 수지여인은 혈육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뉴욕호스피탈의 오진으로 실명, 병원측으로부터 뉴욕주민사사상 최고액인 5백50만달러를 배상받은 김정숙씨(미국명 수지·김)는 서울에 세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없다. 그들은 내가 미국 온후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등 혈육을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

公證된 호적등본 보고도 "두고가라"
失明前 동생들이 經濟的 도움 요청

▲김 정 숙씨.

김여인은 서울에 있는 막내동생 정각씨(34)의 편지를 듣고 찾아간 본보기자에게 아파트문을 통해 『지난주말 전화를 받았다. 더이상 할말이 없으니 전해줄께 있으면 두고가라』고 냉정히 말했다.

김여인은 기자가 아파트문 밑으로 전네준 영어로 번역돼 공증받은 김여인의 호적등본을 받고는 기자가 돌려주기를 희망했으나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발부한 호적등본에는 김여인이 1932년 1월4일생이고 아버지가 김영호씨, 어머니가 박이분씨이며 정선(37), 정각 두친동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여인 막내동생 정각씨는 호적등본에는 없으나 정숙씨밑에 둘째 언니 정순(46)이 있다고 했음).

서울에 있는 김정각씨에 따르면 맏언니 정숙씨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인지 형제의 애틋한 정을 잃어버린 전혀 딴사람으로 변한것으로 보인다.

정각씨는 24일 본사와의 국제전화에서 1952년 미군장교를 따라 도미한 언니는 완전한 미국인이 돼버렸는지 우리가 생각한 언니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언니의 실명소식을 접하고 수소문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내 지난주말 하루빨리 뉴욕에 와 만나고 싶다는 정각씨의 전화에 수지여인은 『요즘 바쁘다. 녹음테이프에 자세한 사연을 담아 보내면 초청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는것.

수지여인은 서울에서 여중을 졸업하고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과의 통화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모른다며 영어로만 답했다.

서울에 있는 정숙씨의 세여동생들은 큰언니가 실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앞못보는 언니를 데려다 같이 살고싶어 했다.

정각씨는 24일 본사에 도착한 편지에서 『장님이 된지 6년간이나 소식을 전하지 않은 언니가 원망스럽다』며 『언니가 초청장만 보내주면 뉴욕으로 달려가 같이 살자고 애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각씨는 이날 국제전화에서 언니의 실명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형제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가능한한 큰언니를 데려다 정성껏 돌보아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각씨는 또 언니를 만나면 눈이식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지여인이 동생들과 멀어진데는 실명전 동생들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데도 원인이 있는듯.

수지여인은 78년 5월 동생 정순씨에 보낸 편지에서 눈병을 앓고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금은 도와줄수 없다. 2년후쯤 약간의 돈을 보내줄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명후 일생동안 쓰고 남을 거액을 배상받은 수지여인은 그러나 이돈을 친혈제들을 위해 쓸 마음의 준비가 돼있는것 같지는 않았다. 〈뉴욕지사〉

人波에 밟힐뻔한少年
다이아나妃가 구해내

〈뉴캐슬, 영국- 〉 임산중인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환영인파에 밀려 짓밟힐뻔한 한 소년을 구출해냈다.

22일 찰스황태자부부는 동북부에 있는 유스센터를 방문중이었는데, 환영인파에 밀려 어린소년이 넘어지자 다이아나는 찰스황태자에게 소년이 위험하다고 귀띔, 찰스가 군중들에게 멈출것을 명령해 소년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한국군 총격 부인

(서울 24일=연합) 유엔사령부는 24일 한국군이 23일 휴전선 북방 북한군 진지에 총격을 가했다는 북한측 주장을 부인했다.

기자회견에서 유엔사는 미국, 남한및 유엔사의 제3국들과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측주장이 사실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 민 동 정

◇조지섭

블루어 한인상가의 아세아 한약방이 645 Bloor st. W.(한인신용조합옆) 으로 확장이전했다.

75년부터 토론토에서 한약방을 개업해온 조지섭씨는 지금까지 주로 교민중심으로 보약·첩약을 주로 취급해 왔으나 이전과 더불어 캐네디언 고객도 끌어 헬스·뜸판매와 물리치료도 실시한다.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은 530-0522.

◇조지섭씨

크롱카이트 老益壯
年收百萬弗씩 받아

전 CBS 뉴스 앵커맨이었던 월터 크롱카이트는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CBS로 부터 연간 1백만달러의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 활동, 현역 앵커맨들을 무색하게 하고있다.

CBS에 따르면 크롱카이트는 은퇴하던 날인 작년 11월4일부터 7년동안 매년 1백만달러씩 지급 받으면서 특별취재및 특파원,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7년후인 88년부터는 10년동안 연 15만달러를 받는다.

한편 크롱카이트의 뒤를 이어 앵커맨의 자리에 오른 댄 래더는 5년동안 8백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름없는 일본제의 레코드형 카메라―마비캐으로 불려지는 이 레코드형 필름은 사진을 찍은 다음 다시 지울수도 있어 재사용이 가능, 녹음테이프를 연상케하고있다. 50장을 수록할수있는 이 혁신적 발명품은 필름이 아니라 Magnetic disc로 되어있으며 마비카라는 카메라에만 사용가능. 일본 소니회사 창설자의 한사람인 아끼오·모리따회장이 런던전시회에서 선을 보이고있다. 〈런던- 〉

LA五輪 福券발행

政府 당첨2千명에 LA왕복항공료·숙박비

〈서울본사전화〉 정부는 오는84년 LA올림픽에 많은 국민이 참관할수 있도록 84-LA올림픽 복권을 오는 7월1일부터 발행하여, 이복권에 당첨된 2천명에게는 LA까지 왕복항공요금및 숙박비등을 부담해주게된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관장하게될 올림픽복권에서 LA올림픽게임참가복권은 1천원짜리와 2천원짜리 등 두종류이다.

이중 1천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자본인이 그리고 2천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부부동반으로 LA올림픽게임을 참관할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복권이외에도 88년 서울올림픽개최에 필요한 경비염출방안의 일환으로 오는7월1일부터 올림픽유치복권과 서울올림픽유치 1주년기념주화를 9월말부터 각각 발행한다.

"보험료 책정에 문제있다"
나이·성에 따른 차별철폐

자동차 보험업계는 온타리오주로부터 보험료 책정시 운전자의 나이, 성별, 결혼여부에의한 차별을 없애도록 압력을 받고있다.

밥·엘지 소비자및 사업관계장관은 지난주 보험업계가 온타리오주 인권법안및 새로제정될 캐나다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처사로서 전체 운전자들로부터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먹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같은 조건일경우 성별로는 여성이, 결혼조건으로는 기혼자가,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인자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게끔 해왔다. 사고율을 참고, 특히 20세미만의 남성 미혼자의 보험료는 높게 책정해 왔었다.

엘지장관은 소비성이 검토를거쳐 새 보험료정책제를 실시하기에는 적어도2, 3년간이걸린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성이 새 보험료 책정제에 반영하고자 하는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의 주당 운전거리와 총 운전거리.

◇운전자의 교통위반 건수.

◇주 운전자의 운전경력.

◇지난 5년간의 과실로 판결된 사고건수.

◇종운전자(가끔 차를쓰는 운전자)유무.

교민의 벗

533 2361

점심특별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15일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계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밤1시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 국 관

대표 : 이옥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가장필요합니다.

캐나다에는 기술있는 사람들의 부족으로 인해, 충당되지 못하는 직업들이 있읍니다. 과학기술은 어떤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빨리 변화되고 있읍니다. 만약 캐나다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적인 국가로 존재하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기술분야및 새로운 과학부문의 기회를 갖는 학식있고 젊은 캐네디안들입니다.

고용및 이민국에서 우리가 도와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들이 결코 갖고 있는 것을 몰랐던 미지의 능력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연방정부 계획은 그들을 돕고, 훈련시켜 그들이 갖는 미지의 능력을 유용하게 만듭니다. 칼레지및 교육기관에 특별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캐네디안들은 보다 중요한 과목을 교실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프로그램내에 훈련받고 있는 모든 견습생들이, 연방정부 도움으로 보조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올바른 직업을 갖는데 도와주고, 산업부문도 바른 사람을 갖게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캐나다 직업을 돕습니다.

For a copy of the booklet
"Are we ready to change?"
write: "CHANGE" Ottawa, Ontario K1A 0J9

NAME:

ADDRESS:

캐나다 직업을 돕는

Employment and Immigration Canada
Lloyd Axworthy, Minister

Emploi et Immigration Canada
Lloyd Axworthy, Ministre

Canadä

이민생활과 스트레스(1)

김 보 경 박사(심리학)

◇김보경 박사

편집자주 : 이글은 영국 에딘버러대학과 토론토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김보경박사가 지난2월14일토론토 벧엘교회 여선교회주최 교양강좌에서 강의한내용이다.

이민자가 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분석, 해소책을 제시한 김박사의 글은 모든 이민자의 정신위생을 위한 방향제시가 될 것으로, 믿어 전문을 몇차례에 나누어게재한다.

김보경씨는 현재 온타리오주 페네텐기션 정신병원에서 심리학자로 근무하면서 매주 토요일 토론토로 와서 교민들을위한 정신건강 크리닉을 600 Sherbourne St. #406에서 연다. 연락및 전화예약은(705)549-3454이며 교민상담료는 시간당 $30이다.

서론 : 이민초기·스트레스

이민생활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이민 가정의 문제가 점차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는 틀린 것이 아니다. 이민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를 도와주려는 지역사회의 교회 목회자라든가, 직접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문제를 취급하는 의사, 사회사업가, 또는 변호사의 의견도 이민자들의 개인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민자들의 정신위생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상담해온 미국의「스루즈키」박사는 이민과정을 첫째, 이민준비 단계, 둘째, 이민단계, 세째, 과대보상 단계, 네째, 위기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교체 단계로 나누어 이민과정의 시기적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증대를 지적하고 있다.

이분의 관찰에 의하면, 이민준비단계, 이민단계에는 이민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타개할수 있고, 또 이민 후 얼마간은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와도 더 큰 용기와 더 큰 힘을 짜내어 가족 전체가 단결·합심하여 노력하는 과대보상기 가 있지만, 이·기간이 지나면 용기와 힘이 점차로 쇠퇴해지고, 가족간에도 시비, 원망, 갈등이 늘어나서 급기야 정신적 위기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도 1970년 정도에서 급격히 시작하여 10여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많은 가정이 이 스트레스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스트레스"란 말은 근심·걱정·불안·공포감 등으로 심신이 피곤하고 신경이 툭 하면 곤두서는 상태를 말한다. 즉 스트레스란 안심되고,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와는 반대되는 상태이다. 짜증스럽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기분이 상하며, 쉽게 말다툼하고, 쉽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스트레스 상태라 보겠다.

이민자들이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을만한 이유를 다음 몇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것이다.

첫째, 의욕 저지, 둘째, 갈등, 그리고 세째, 긴박성이 그것이다.

1. 이민자들은 보다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민자들은 새 사회로 향할 때 큰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그래도 자기나름대로 희망적인 면만 생각하며 이민 온다.

처음의 어려움은 그래도 응당 그려려니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은 안되지만 살아갈수록 자기의 이상과 꿈은 더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을 실감할때 분노가 점차로 생기게 된다.

캐나다에 온 한국 이민자들은 대개 교육 수준이 높고, 또 한국에서 지도적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이 한국을 떠날 때 단지 물질적 안전을 위해서만 캐나다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상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가? 아마「마슬로」란 심리 학자가 말한 "자기실현의 요구"라는 말로 이민자들의 좌절의 원인을 말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슬로는 모든 인간에게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몇 단계의 요구가 있고, 인간이 기본단계의 요구를 만족하면 보다 고차적인 단계의 요구를 충족 시키려 한다고 말한다.

이분이 말한 요구단계는 첫째, 생리적 요구, 둘째, 안전의 요구, 세째, 애정및 소속의 요구, 네째, 긍지에 대한 요구, 다섯째, 자기실현의 요구, 그다음 더 고차적인 단계로서 학문, 예술, 심리적요구를 들고있다.

우리들이 이민온 후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생리적 요구와 주변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 모르고, 또 각종 그룹, 교회, 지역사회 조직등에 소속되어 소속감등은 갖고 있을지 모르나, 그보다 더 고차적인 요구, 즉 자기의 재능과 소질과 이상을 실현화 시키는 자기실현의 요구를 만족 시킬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민자들의 일반적 현실은 생리적 요구, 안전적 요구의 테두리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선택의 여지를 주지않고 있는 것 이다. 한국에서 기자하던분, 교사하던분, 공무원하던분이 카나다에 와서 한국에서 누려왔넌 똑같은 사회적 특권을 향유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없었다더라도 그 의기, 그 이상이 좌절될때 자기도 모르는 회의와 분노가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계 속)

◆용감한 여성－방화범을 체포한 스튜어데스 테레사·퀸양이 총을 들고 체포상황을 설명하고있다. 비번중이던 퀸양은 집근처의 화재현장에서 수상한 남자를 발견, 미행하다가 그남자가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린 순간, 총을 대고 체포했다고. 이범인은 6차례 연속 화재방화혐의를 받고있다.〈달라스, 텍사스－AP〉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㉔

보좌신부의 첫 시련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그러다 루씨는 내 타락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수녀들로만 구성된 야전병원 봉사단에 스스로 지원했다는거야. 물론 나를 만날수있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도 없지않아 있었다는거야.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된거라네. 아까도 말한바와 같이 우리들은 옛사랑을되찾았고, 또 장래를 다시 설계할만큼 사랑하게 되었다네. 루씨도 내가 제대하는대로 수녀원에서 나와 우리는 결혼할 것까지 약속도 했었다네. 그때 나는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했는지 …역시 하느님은 인간의편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만날수 있게끔 섭리해주셨다네. 신부놈들이 신학이란 이름으로 조작해낸 "하느님의 벌"때문에 수녀원에 입회한 루씨를 하느님께선 정말 자비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돌려주신거야. 그런데 신부놈들은 또 우리의 사랑을 훼방하기시작했다네. 우리의 사랑을눈치챈 야전병원의 군목신부놈은 루씨를 불러 우리의 사랑에대한 고백을 받았다는거야. 그로부터 며칠후루씨는 어딘지 알수없는 곳으로 소환되어 떠나버렸고, 나는 영국본토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네. 이처럼 우리는 또 비극의 이별을 당했다네. 이 얼마나 원통하고 가증스러운 일인가 말이야. 왜 신부놈들은 하느님의이름으로 인간의 행복을 이처럼 모질게 짓밟느냐 말이야! 그 군종신부놈이 나에게 말하기를「하느님 께 몸바친 신부나 수녀를 사랑한다는것은 죄중의 죄인 대죄가된다. 왜냐하면 신부나 수녀는 축성된 하느님의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사랑한다는것은 하느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같은 것이기 때문이다.」하여튼신부놈들은 인정사정도 모르는 것들이며,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행복을시기하는 볼품없는 녀석들이라니까. 인간의 사랑을 체험할수없어 치사해져 버린 놈들이야."

부리노는 또 흥분되어신부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말들이 내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실컷 저주하고 욕하게나. 그럼으로써 자네가 지난 20여년간 지녀온 울분을 다 털어버리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말했다.

"그런 신부놈은 욕 이상의 것을 받아야해. 하여튼 그때 나는 그놈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만일에 교회가 가르치는대로 내가이런 상태에서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는 그 신부놈의 발을잡고 그놈과 함께 지옥에 갈테니까…"

그는 몹시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지옥이든 천당이든 그런것은 나중에 있게될 문제니까 다음기회에 다시말하기로 하세. 오늘은 지난일에 대해서만 말하기로하세나. 그후 어떻게 됐나? 루씨와의 사랑이 말이야."

"뭐 뻔한일이 아닌가? 현재나는 이런꼴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말일세."

그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을 피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이 기회가 아니면 그의 이야기를 다시는 들을수 없을것 같아 그의말을 재촉했다.

"물론 자네의 현실적생활로보아 루씨와 결혼못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루씨는 아직 수녀로있나?"

"아니야!"

그는 힘없이 머리를 떨구며 말했다.

"그럼"

"죽었어"!"

"뭐 루씨가 죽었다고? 어떻게?"

나는 예상치 못했던 그의말에 정말 놀랐다.

"………"

그는 묵묵히 시가만 피우고 있었다.

"그게 정말인가? 그럼언제 루씨가 죽었단 말인가?"

"교회와 신부놈들이 그녀를 죽였어! 그러니까 이미 오래된 일이야…"

"그럴수가 있겠는가? 설마 교회와 신부가 루씨를 죽였을라고?"

"교회와 신부놈이 나에대한 루씨의 사랑을 방해했으니 그게 그녀를 죽인것이 아니고 뭐란말인가? 루씨가 본국으로 소환되고 나는 영국으로 이송되고…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으니 모처럼 재생하기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살길이 없었다네. 사랑이 없어진 삶의 터전에서 루씨의 인간적인 생명도 시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죽고 말았다네. 그러니 교회와 신부놈들이 루씨를 살해한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왜 루씨의 사랑을 찾아나서지 않았는가? 교회와 신부들이 루씨를 자네한테서 떼어놓았다 하더라도 자넨 그녀를 찾아나서야되지 않았는가?"

나는 다소 음성을 높이며 말했다. 그렇게 서로사랑하면서도 타의에 의해헤어져야만 했던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분해 나는 소리높여 그에게 말했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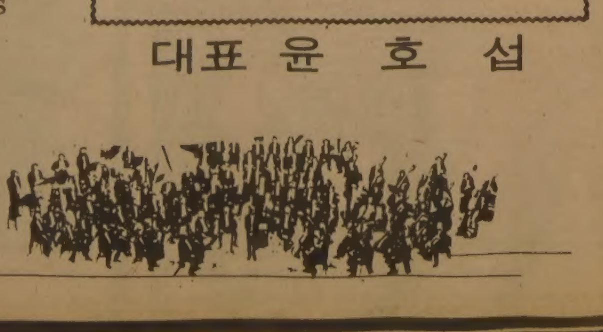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화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科學資料등 첫送信
콜럼비아 航進순조

水力장치고장 수리

【케이프카내베랄22日頭·UPI聯】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는 22일 상오11시(한국시간 23일새벽1시) 지상연료장치의 고장으로인한 1시간의 발사연기에도불구하고 처음으로 예정된 날짜에 케이프카내베랄우주발사대를 떠나 궤도에 진입한후 이번 3차비행의 첫번째 과학자료를 지구로 보내왔다。

발사2시간후 잭·루스마、고든·플러튼등 두 우주인은 7일간에 걸친 1백15회의 궤도비행에 필수적인 냉각장치를 작동시켰으며 앞서 발사36분후 가스및 먼지分子오염측정장치에서 얻어진 첫 과학자료를 지상에보내왔다。

白堊館에서 발사광경을 지켜본 조지·부시美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에게『기막히지 않으냐』고 물었으며 대통령은『멋지다』고 대답했다。

발사7분후 3개의 수력장치중 1개가 과열、폐쇄되었으나 케네디우주센터의 대변인은 이문제가 사소한것이며 7일간의 비행기간중 수리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동력장치(APU)로 알려진 이장치는 우주왕복선의 이륙과 착륙에 수력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앞서 콜럼비아號의 비행에 큰지장을주었었다。

이날 무게 2천2백39톤의 콜럼비아號는 지상연료공급장치의 이상때문에 예상보다 1시간늦게 大西洋에 인접한 발사대를 떠났다。

발사2분후 추진로키트가 콜럼비아號에서 떨어져나와 大西洋으로 낙하한후 2척의 선박에 의해 회수되었다。

7분후에는 우주왕복선의 외부연료탱크가 印度洋으로 떨어져나갔다。

19일간에 걸친 스카이랩우주정거장비행에 참가했던 고참우주인 루스마는 우주선외부연료통에서 떨어져나온 얼음조각이 콜럼비아號의 창문을 지나치는 것을 보고『희고 작은 눈송이같은것이 많이 지나간다。정말로 아름답다』고 말했다。

애그로프롬社와 6萬톤 재계약때

390萬弗 더준 이유는

"당시 國際價보다 톤當65달러 비싸"

經科9人委질의 6년간 美쌀2백12만톤導入

◇국회外米導入진상규명 9人小委에서 金周浩조달청장(左)이 회의도중 申相式小委위원장과 협의하고 있다。

국회 經科委의 外米도입진상규명 9人小委(위원장 申相式의원)는 23일하오 비공개 3차회의를열고 金周浩조달청장으로부터 美下院의 聽聞會 결과및 퍼미社와 20萬톤을 계약한후 코넬社와 南部米를 10萬톤 追加도입을계약케된 배경과 내용、애그로프롬社와 버마産과 이탈리아産쌀 6萬톤 계약연장 이유등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李炯培、洪思德(이상 民韓) 金鍾河(국민) 趙舜衡 의원(議政)등 야당 의원들은『日本쌀 1백萬톤 구입의 조건으로서 美南部米 20萬톤을 퍼미社로부터 도입토록 계약을 맺었는데 追後 코넬社를통해 10萬톤을 추가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지고『정부가 2백40萬톤의 外米도입계획을 세운 80年11월7일은 當該年度의 秋穀생산량을 예측할수있는 시기이며 당시 필요량이 2백萬톤인데도 2백40萬톤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고물었다。

의원들은 또『애그로프롬社와 81年1월25일 6萬톤을톤당 3백35달러로재계약한후 1월30일 퍼미社와 殘餘分7萬톤을2백80달러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불과 5일사이에톤當65달러의 가격차이로 애그로프롬社에 모두 3백90萬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에대해 金조달청장은 답변에서『결과적으로 日本産 1백萬톤을 구입하는것은 美정부의 양해사항으로 되어있고 코넬社가 美의회의원들을 동원、추가로 10萬톤을 구입치않으면 1백萬톤 도입양해사항을 飜意토록 하겠다고종용하여 추가로 10萬톤을 계약케됐다』면서『日本産 1백萬톤은 도입조건등이 모두좋아 國益을위해 10萬톤을 추가도입토록했다』고말했다。

그는이어『美議會의청문회에서는 한국이 도입을 약속한殘餘37萬톤에대한구매독려 및앞으로더많은쌀을한국에팔아야되겠다는내용이있었다』고 말했다。

지난76년부터 81년까지 6년간 우리나라가 美코넬및퍼미社로부터 도입한 쌀은 총 2백12만1천3백36톤에 8억1천3백56만8천7백71달러인것으로 나타났다。

調達廳이 23일 국회經科委 9人小委에 제출한 자료에의하면 76년에는 총9만2천5백16톤의 쌀을 코넬社로부터 톤당 2백31달러68센트로 구입했고 77년에도 코넬社로부터 6만1천8백20톤을 1백92달러49센트로 도입했다。79년에는 코넬社로부터 52만3천톤을、퍼미社로부터 6만톤을 구입했고 80년에는 코넬社로부터 64만4천톤、퍼미社로부터 10만톤을 각각 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또 81년에는 코넬社로부터 40만톤、퍼미社로부터 24만톤을 각각 도입했는데 76년당시 2백31달러68센트에 달했던 도입單價가 81년에는 4백49달러90센트와 4백59달러로 올라있었다。

金利 13%까지 引下검토

政府 景氣 활성화위해 換率인상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위해 金利인하、환율인상、세금공세의 완화등 경제활성화시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3일 경제기획원、재무부및 고위보좌관이 협의하고있는 새로운 경제활성화시책은 ▲일반대출금리를 현행 연16%에서 최대 13%까지 인하하는 방안 ▲수출금융금리를 현행12%에서 9%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등 2개안을 놓고 검토중인데 4월중에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출을 자극하기위해 연3%범위내에서 안정시키기로한 환율을 5~6%범위내에서 유동화하고 實物經濟의흐름을 뒷받침 하기위해 과도하게 위축된 通貨(M1) 공급을 늘리기로 하고 요구불예금의 성격을띠고있는 저축예금의금리를 현행 연14%에서 10%이하로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1·14경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계속 침체되어있을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수출까지 둔화되고있어 빠른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결론을내리고 일반금리인하와 수출금융금리의 인하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아울러 환율의 실세화및 저축예금의 금리인하를 병행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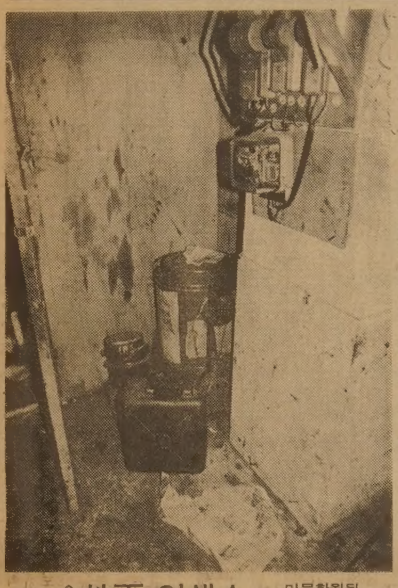
정부는 최근 국내 물가가 안정추세에 있음에비추어 예금자에게 실질금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때문에 일반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제금리가 높아 단기무역신용이 축소되어 국제수지의 악화현상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에 국제금리 동향을 점검한후 일반금리인하를 최종결론짓기로했다。따라서일반금리인하가 불가능할경우 수출금리를 인하키로했다。

한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중 2~3천억원의 稅收감소가 예상되고있는데 정부는 세금공세를 강화하지않고 稅收결함분은 예산절감을 통해 조정키로했다。

釜山 美文化院사건

除籍여대생등 5명 새容疑者로

휘발유 판 注油所찾아



◇地下 인쇄소 미문화원뒤 산장여관지하실 인쇄소。계단 오른쪽 창문에서 2개의 플래스틱통이 기름묻은 면장갑、옷가지등과 함께 발견됐다。【金海雲기자 찍음】

【釜山=盧基昌기자】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3일 수배중인 李鎬諾등 남자외에 교내시위를 주도하다 학사징계를 받은 B여대생 金모양(23)등4~5명이 관련돼있는 것으로 보고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문화원뒤편 30여m떨어진 산장여관지하인쇄소에서 범인들이 휘발유를 운반한것으로보이는 플래스틱통 2개를 발견한데이어 휘발유를판 주유소도 밝혀냄으로써 수사에 활기를띠고있다。

지하인쇄소는 지난 2월부터 폐업중이었으나 인쇄기등은 그대로 있었는데 플래스틱통은 인쇄소 계단창문터에서 발견됐고 통속에는 휘발유가 약간 남아있었다。

한편 중구청앞 육교밑에서 중앙성당앞까지 기름통을 든 남자2명을 태워다준 택시운전사 朴모씨(37)는 이날 발견된 용기2개중 하늘색20ℓ들이가 자기가 실어다준것과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인쇄소에서 범인들이 휘발유를 뿌리기편리한 다른 플래스틱용기에 옮겨넣고 빈통을 방치한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朴씨의 차를 탄 두청년과 비슷한 사람들이 방화 3시간전인 지난18일 상오11시께 부산西區忠武洞 B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간 사실도 확인했다。

종업원 金모씨(42)는 이날 23~25세가량의 청년 2명이 20ℓ들이 베이지색 4각통에 휘발유 20ℓ를 넣고 10ℓ짜리 하늘색통에 10ℓ를 사갔다고 말했다。

金씨는 그청년으로부터 5천원짜리 5장을 받아 기름값 2만2천2백원을 제하고 거스름을 내주었으며 플래스틱통으로 휘발유를 사가는 일이 드물기때문에 이청년들을 기억할수있다면서 1명은 안경을끼고 키가컸고 다른 1명은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건당일 뿌려진 불온전단에서 지문6개를 채취、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7回 한국 演劇·映画芸術賞 施賞

社告 作品·演出·監督등 9部門대상 올施賞무대 家族的 분위기로

제18회 한국演劇·映畵예술상 施賞式

4월13일 下午6시 롯데호텔 클리스탈 볼룸서

한국일보社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한국演劇·映畵예술상시상식을 오는 4월13일(火)하오 6시 롯데 호텔클리스탈·볼룸에서 화려하게 개최합니다。한국演劇·映畵예술상은 1년동안(올해는 81년 4월부터 82년 3월까지)의 연극·영화·TV예술을 총결산하는 하나밖에 없는 민간단체주최의 종합예술축제입니다。

이제 18세 성년을 눈앞에 둔 축제를 보다 화려하면서도 알차게 만들기위해 올해부터 아카데미 예술상 시상식처럼 무대를 호텔의 대연회장으로 옮겨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읍니다。이 자리에는 국내정상급 가수 趙容弼과 윤시내、혜은이、함중아들과 코미디언 이주일、金康燮악단이 출연하는 가운데 지난해 수상자들이 각부문의 수상자들을 직접 호명、「생애최고의 영예」를 안겨주게 됩니다。

시상은 각 3개부문에서 作品賞、演出·監督賞、演技賞등 총 9개부문의 수상자를 뽑은뒤 심사위원들의 긴박감 넘치는 현장투표로 大賞을 선정하게 됩니다。특히 3개부문의 작품상은 문화공보부장관상이 수여되며、영화부문의 연기상 수상자들에게 영화진흥공사 사장의 특별상 시상이 곁들여집니다。이날의 시상식에는 디자이너 앙드레·金씨가 특별히 제작한 의상쇼도 함께 마련됩니다。일류스타들과 함께 디너를 들면서 호화예술축제를 즐길수 있는 한국연극 영화 예술상 시상식에 많은성원을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실 분들은 정장을 해야하며 미성년자는 입장할수 없읍니다。

◇施賞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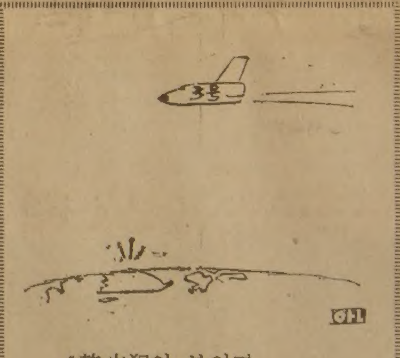
▲大賞(연극·영화·TV드라마부문) ▲作品賞(연극·영화·TV드라마 각부문) ▲演出·監督賞(연극·영화·TV드라마 각부문) ▲演技賞(연극·영화·TV드라마 각부문) ▲技術賞 ▲新人賞 ▲戱曲·시나리오·TV드라마 劇本賞 ▲文化映畵賞 ▲特別賞

◇豫賣處

▲入場券 1枚當 3만원(디너및 음료제공)(先着順3百枚限)
▲한국일보사 사업부(722)1472·1575)
▲롯데호텔 뉴스스탠드(771)10交552局1933)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放火犯이 보이면 연락바람./오버."

地平線

살다보면 희한한 일을 많이 겪게된다。다행히도 우리나라엔 수입된 흔적이 없는것으로 나타난 연어통조림 사건만 해도 그렇다。멀리 알래스카에서 연어통조림이 3백만箱이 수입될뻔했다는 소식부터가 어벙벙하다。우리나라에도 생선이 얼마든지있는데 무엇이 아쉬워 그렇게 많이 수입하려고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들리는소리가 벨기에등 유럽에서 식중독을 일으켜 人命까지 앗아간 무서운 보툴리누스菌에 오염된 연어통조림을 한국에 팔아먹겠다는 일이 그야말로『좋은 아이디어』라고 누군가가 칭찬했다니 어이가 없다。이사건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내용대로라면 한국소비자들은 식중독도 모르고 外製食品이라면 아무거나 다 치는 原始人정도로 알았음이 틀림없다。신선한 연어나 냉동연어면 몰라도 연어통조림에는 익숙하지못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벌였을 현지업자들의 뻔뻔스런 얼굴이 상상되고도 남는다。

▼하나 이기회에 우리 소비자들도 조금은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우선 外製食品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성향부터 고쳐야된다는 얘기다。한때 수입食品이 수입자유화의 물결을타고 마구들어와 外製과자를 싸구려값에 덤핑판매하는일까지 벌어졌으니 말이다。아직도 明洞거리에 나가면 미제 카멜、드로프스가 판을 치고있고 미국담배를 집에서 피우는 사람도 상당수인 것같다。그뿐 아니라 미제냉동고기까지 도깨비시장에서 팔리고 있다。알래스카産 연어통조림이 아무 탈 없이 들어왔다면 필경 날개가 돋친듯 팔렸을 것이다。

▼몇해전엔가 외국에서는 판매금지가된 有害色素의 食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말썽이 난 일도 생각난다。국제시장정보에 너무나 어두웠던 것이다。또 防腐加工食品에는 無防備狀態인것이 우리 실정이기도 하다。그렇다고 외국얘기만 할 것도 못된다。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도 有害添加劑나 殘留農藥·硬性洗劑의 毒性이 포함될 가능성은 많기 때문이다。

▼흔히 소비자에게는 네가지 권리가있다고들 한다。첫째는 安全의 권리、둘째는 알권리、세째는 선택의 권리、네째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이다。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여러가지 권리가 식품구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우리나라에 오염식품을 팔아먹겠다는 商魂이 비록 주춤하기는 했으나 제2、제3의 연어통조림 상담이 안일어난다고는 보기어렵다。變質米나 썩은고추 導入사건의 惡夢이 아직 잊혀지지않는 이때 식품위생검역에 한층더 경각심을 기울여야 할것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Y—S 보석상
o각종보석
o다이아몬드 품질보장
o최저가격
o뉴 디자인
o보석개조 교환매매
o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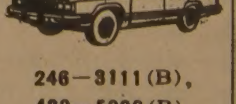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BREAD-MAN
(Woodchester) Ltd.
2458 Dundas st. W. Miss. Ont.
◎년간매상 : $190,000
◎면 적 : 918 sq. ft.
◎렌 트 : 965불
◎리 스 : 83년 3월31일까지
◎옵 션 : 5년
◎아스킹 : $120,000
◎다운페이 : $50,000
※한 가족(4명경우)이 할 경우 년 수입 5만불 보장.
문의처☎ : 675－8930
Mr. 오

코리아 하우스
영업시간 연장안내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자라온 본 KOREA 하우스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시간을 변경, 연장하고 보다 나은 써비스로 고객여러분을 모시려 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변경시간 : 종전—오전11시~오후11시 에서
현재 : 오전12시~새벽1시
※점심시간에는 Lunch Special 이 있읍니다.
666 BLOOR ST. W.
☎ : 536－8666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46－31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콜럼비아는 人類최선의 希望

레이건宣言 "이 榮光을 아프간國民에게"

콜럼비아號발사 이모저모

◇레이건 미 대통령과 조지·부시부통령이 22일 白堊館의 대통령서재에서 TV를 통해 콜럼비아호의 발사광경을 지켜보고있다. 【워싱턴22日UPI=聯合】

손뼉치며 歡呼聲

○…美유인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22일상오11시(한국시간23일새벽1시) 오린지빛 연기를 내뿜으며 케네디우주센터의 39A발사대를 이륙하자 이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1백만명의 군중들은 손뼉을치며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대학생·퇴역군인및 자녀를 동반한부모들을비롯, 케네디우주센터 인근 해변과 해안선제방에 운집한구경꾼들은 팔짱을 끼고목을 길게뽑은채 콜럼비아호의 성공적인발사를 지켜보았으며 콜럼비아호가 굉음과 연기를뿜으며 올라가는 동안 카메라의 셔터를 부지런히 눌러댔다.

개발비 1백億弗

○…레이건 美대통령은 이번 콜럼비아호의 비행을 자유를위해 투쟁하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헌납한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콜럼비아호는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인류최선의 희망을 대변하며 아프간인의 투쟁역시 자유를위한 인류최상의 열망을 대표한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아프간인들은 현재 소련침공군과 소련지원하의 정부군에 대항해 자유를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콜럼비아호는 아프간인의 열망이 성취되길 비는뜻에서 소형아프간국기를 싣고 떠났다.

○…콜럼비아호의 개발이 착수된 1971년에는 개발비용이 51억5천만달러로 책정됐으나 그동안의 인플레때문에 현재의 개발비용은 배에가까운 1백억8천3백만달러로 추산되고있다.

지구궤도를 선회한 왕복선 자체의 제작비용도 71년에는 2억5천만달러가 될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적인 현재의 제작비용은 12억달러나 된것으로 밝혀져 그동안의 인플레를 실감케 하고있다.

선명한 TV畫面 電送개시

宇宙공간 微小隕石 채취도

인플레實感…제작비용만 5배 늘어나

落下地에 정확히

○…콜럼비아호발사후이 왕복선의 우주궤도진입을 도왔던 2개의 강력한 보조추진장치는 발사2분6초후 우주선에서 분리돼낙하산을 타고 대서양의 정확한목표지점에 낙하했다.

나사(미항공우주국) 회수선2척은 이 보조추진장치가 데이토너해안에서 1백70㎞떨어진 대서양상에서 회수선으로부터 9마일 지점에 낙하한 것을 목격했다고 이 보조장치제작회사대변인이 밝혔다.

이대변인은 회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경우 23일밤 이 두개의 보조장치가 케이프카내베랄기지로 인도된후 수선을위해 유타州로운반될것이라고 말했다.

3시간뒤에 電送

○…콜럼비아호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륙한지 3시간후 TV화면을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우주센터관계자들은 이우주선의 일부 기능장애부분이 이우주선의 열기가 식을경우 정상을 회복할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太陽·별 마주봐

○…콜럼비아호는 이번 3차비행중 시험비행사상 최초로 태양과 별들을 마주보게된다.

콜럼비아호는 태양표면의 폭발시 분출되는 X선의 양을 측정하며 우주공간의 微小隕石을 채취하여 지구로 가져오게된다.

과학자들은 이들 운석을 분석, 이것이 소혹성 또는 혜성의잔해인지를판별한다.

콜럼비아호는 또 태양광선의 반사광선으로 이른바 「黃道帶」에서 분출된것처럼 보이는 황도대광선을 분석한다.

빠른歸還에 대비

○…화이트샌즈미사일발사장에는 22일 콜럼비아호가 사고로 인해 예정보다 빨리 지구로 귀환할것에대비, 약1백명의 기술자들이 20대의 차량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

콜럼비아호는 지난해 11월의 2차비행시 많은 과학실험기재를 휴대했으나 이들 실험기재는 모두 우주공간보다는 지구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곳 스프롤링기지 노트럽활주로의 깨끗한 모래밭에는 약 1천5백톤의 특수장비가 캘리포니아 착륙활주로로부터 열차편으로 도착해 있을뿐 지난21일현재까지 회수반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새 활주로에서의 전면 예행연습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래리·킹 나사 대변인은 밝혔다.

『기술자들은 콜럼비아호가 비상착륙할 것에 대비, 주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약간의가상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그는말했다. 【케이프카내베랄=聯合】

스위스銀行·秘密口座 사라진다

"身分안밝히면 去來못한다" 운영규칙 改定

財産도피수단 惡用에 쐐기

비난輿論·信用度 실추反影

海外話題

돈의 출처와 예금주에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간판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아온 스위스은행의 비밀예금구좌 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記號만으로 구좌를 개설하는 스위스은행의 비밀예금제도는 박해받고 약한 자의 재산을 영세중립국인 스위스가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비밀예금제도가 합법적으로 스위스정부의 보호를받게된것은 1934년부터. 나치스가 유태인을탄압하자 유태인의 재산이 스위스로 몰리면서 부터였다.

스위스정부는 나치독일에서 밀파된 밀고자들로부터 유태인의예금을 보호해주기위해 기호만을쓰는 비밀예금제도를 허가해 주었다.

날고긴다는 나치비밀경찰 게슈타포도 스위스은행의 비밀구좌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스위스은행이 유태인의 재산을 성공리에 지켜내자 스위스은행의 신용도는 세계적인것이 되었고 해외예금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 예금중에는 스위스은행의 신용도를믿는 善財보다 철저한 비밀주의에끌린 뒷거래재산이 많았다.

오늘날에와서 이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후진국독재자의 부정축재와 탈세기업가들의 재산도피수단에 악용되고있다는 국제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있다.

심지어는 국제범죄조직의 행동자금 대부분이 스위스은행의 비밀구좌에서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최대의 범죄조직인 마피아단의 행동자금 5억달러이상이 한상 스위스은행의 비밀구좌에 대기하고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가 있기도 하다.

게다가 비밀구좌라는 맹점을 이용해 은행원들이 고객의 돈을 몰래 빼돌려 투기사업을 하다 들통이 난 경우마저 있다. 77년에일어났던 치아소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스위스신용은행의 치아소지점장이 본점과 예금주 몰래 8억달러를 불법사용했던 이사건은 스위스은행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비밀예금제도에 대한 큰반론을 불러일으켰다.

악명높은 독재자가 몰락한뒤 반드시 거론되곤 했던 부정축재문제나 록히드사건과 같은 국제뇌물사건의 와중에 스위스은행은 약방의 감초처럼 끼여들곤했다.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 월남의 티우, 캄보디아의 론·놀, 이란의 팔레비왕등 내노라하는 부정축재자는 대개가 스위스은행의 단골고객이었다.

오일달러를 독점해 돈을주체하지 못하고있는 아랍왕족들의비밀금고도 대부분이 스위스은행에 있다.

스위스의 은행수는 줄잡아 5백60여개 총인구가 6백30만정도이니 약1만명에 은행이 하나인 셈이다.

스위스은행의 비밀 구좌수는 2백여만개로 전체예금구좌의 1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예금고는 1천5백여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을뿐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모른다.

가장 큰고객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특히 프랑스에 미테랑 사회당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유화조치등을 발표하자 스위스 은행은 더욱 바빠지기도 했다.

스위스의 한 금융인은 프랑스인의 스위스은행 비밀구좌가 65만개에 달하고 예금액수는 8백억달러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3백억달러정도로 알려졌다.

얼마전 2명의 스위스은행가가 이탈리아인의 외화불법유출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사건에는 여러명의 이탈리아은행가도 연루되어 있었다. 3천만달러에 달하는 프랑스의 외화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있던 스위스은행의 한 중역은 자살해버리기도했다.

스위스은행은 또 이디오피아, 셀라시에 황제가맡긴 수천kg의 금을 쿠데타로 집권한 이디오피아군부가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금의 당시싯가는 이디오피아 일년예산보다 훨씬많은 60억달러(한화약 4조3천억원)였다.

스위스은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스위스는 自求策을 강구해야만하게됐다.

스위스은행의 감독관청인 중앙은행은 외화불법유출이나 해외자본도피및 탈세행위에 스위스은행이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나섰다.

또 어느누구도 신분을밝히지않고 스위스은행과 거래할 수없도록 은행운영규칙을 개정해 버렸다.

스위스정부측도 은행의 감독을보다 강화하기로하고 은행측의 더많은 자제와 책임을 추구하고 나섰다.

고객들의 비밀보장을 핑계로 아무돈이나 받아들여 폭리를 취해왔던 스위스은행의 횡포시대도 서서히 막을내리고 있는것 같다. 【李炳奎기자】

◇비밀예금의 城속에서 군림해온 스위스은행에 대한 통제가 서서히 강화되고있다. 비밀보장을 구실로 폭리를 취해온 스위스은행의 전성기도 끝나갈 뿐더러 불법재산의 은닉도 힘들어졌다. 【타임誌】

蘇, 화학武器로 萬여명 殺戮

"라오스·아프간등서 무차별撒布"

美國務省 폭로

【워싱턴22日AP=聯合】미국정부는 22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및 라오스등지에서 人體에치명적인 화학무기를 무차별살포, 모두 1만명이상의 무고한인명을 대량살육하는 비인도적 행위를자행해왔다고 폭로하고 전세계국가들에 화학무기의 사용금지를 위한 汎세계적운동에 참여할것을 촉구했다.

美國務省은 이날 의회에제출한 31페이지의 이른바 「黃雨」보고서를 통해 소련이▲라오스에서 75년부터 베트남軍및 라오스軍과 작당, 「마이크록신」을 사용함으로써 「黃雨」현상을 일으켜 모두 6천3백10명의 주민을 살해했으며 ▲아프간에서는 「트리코테신」이라는 화학무기를 이용, 3천42명의 반정부군과 민간인을 해쳤고▲캄보디아에서는 화학무기로 9백81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했다고 폭로했다.

美국무성은 화학무기에 의한 희생자와 난민, 그리고 화학전에 참가한 도망병의 진술을 상세히 인용한 증거를 예시하고 소위 「황색비」로 일컬어지는 소련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모두 1만5백27명이 살해됐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이보고서는 또 소련이 현지 정부군의 화학무기사용을 엄격히 감시하고 이 무기의 사용을 극히 제한된 장소에만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감시와 비난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비난했다.

◇두 女首相의 만남 英國을 방문중인 인디라·간디 印度수상(오른쪽)이 22일 런던의 다우닝가10번지 수상관저앞에서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의 영접을 받고있다. 【런던22日UPI=聯合】

蘇의 人權위반非難

美議會 결의문채택

레이건大統領 서명

【워싱턴23日AP=聯合】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23일 소련의 인권위반을 비난하는 미의회 결의문에 서명하고 앞으로는 소련과의 과학협력을 소련의 해외활동과 연계시키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인권위반사태, 특히 소련내의 유태인들에대한 차별대우를 규탄하는 의회결의문에 서명하면서 해외이주의 자유및 종교적·문화적 전통추구의 자유를 실행하려는 인사들에대한 소련의 억압조치를 중단할것을 촉구하는 미의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동감한다고강조했다.

이보고서는 미국의 대소과학협력가능성을 가로막는 이유로 ①대부분 소련과학자및 과학연구기관들이 비정상적 수준으로 군사분야에 치중되어있고 ②소련은 미공개된 과학연구성과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방해하고 있으며 ③소련과학자들에게자유로운 해외회의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소련은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해외이주를 원한다는 「죄목」으로 저명과학자들에 대한 투옥과 국외추방및 직업박탈숫법을일삼고있다고비난했다.

팔住民、反이示威 확대

4일째…67년이후 가장激化

【텔아비브22日AP·AFP=聯合】엘비레에서 시작된 요르단江西岸 팔레스타인인들의 反이스라엘시위사태는 22일 총파업 4일째를맞아 예닌·눕카렘·헤브론·베들레헴등 가자지구까지 확산됐으며 통행금지조치가 내려진 라말라西北方10㎞지점의 데이르·아마드난민수용소에서는 시위에 참가했던 17세 팔레스타인소년이 이스라엘軍의 총에맞아 사망했다.

이로써 지난19일 총파업및 항의데모가 시작된이래 이스라엘점령군과 팔레스타인주민들간의 유혈충돌로 사망한 사람은 2명으로 늘어났으며 관측통들은 이번 소요사태가 지난67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점령한이후 가장 위험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스라엘軍당국은 이날 팔레스타인데모군중이 수용소안에서 점령군과 투석전을벌이며 맞서 이들에 대한 경고로 위협사격을 가했으며 이날의 이스라엘軍 발포로 1명의 팔레스타인소년이 사망하고2명이부상했다고밝혔다.

左翼게릴라들에 대규모攻勢

엘살바도르政府軍 2천투입

【산살바도르22日UPI=聯合】약 2천명의 엘살바도르 정부군은 21일 네덜란드기자 4명이 지난주 피살된 지점에서 좌익게릴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군당국이 발표했다.

이 공격에 참가한 2천명의 병력은 미국식 훈련을 받은 특공대와 1백5㎜박격포·전투기및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았다고 엘살바도르국가수비대대변인이 밝혔다.

산살바도르북쪽 69㎞지점 찰라테낭고省都에 포진중인 수비대원들은 이번 공격이 온두라스접경 부근 찰라테낭고省 북쪽에서 20일상오에 개시됐다고 전하면서 『전투는 매우 치열했다』고 말했다.

메아리

우주특급시대

미국의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7일간의 3차비행을 하기 위해 지금 고도 2백50㎞의 궤도를 돌고 있다.

예정보다 1시간이 늦은 23일 상오 1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후 10분만에 궤도에 진입한 「콜럼비아」호는 지구를 1백19회전 하는 사이에 우주환경의 오염조사와 태양에 기체를 노출시켜서 열기나 추위에 견디는 실태등 여러가지 과학적 실험을 하게 된다.

「콜럼비아」호 개발계획이 착수되던 10년전만해도 그 비용은 51억5천만달러였으나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1백억8천3백만달러가 소요될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초강대국 미국의 재력을 갖고도 결코 손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드세면서도 굳이 우주시대를 향해 줄달음 치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우주는 「미래의 전쟁터」가 될지 모른다는 예측의 상식화가 먼저떠오른다. 지금까지 우주공간에 발사되어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약 3천개에 이르며 그 3분의 2가 전적으로 군사목적을 위한것이거나 아니면 방위목적을 위한 것이다.

강대국끼리 쫓고 쫓기는 각축전의 불꽃을 퉁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콜럼비아」호 3차비행에 환호를 올리는 이때만해도 모스크바측은 오는 84년12월 금성에 또 다른인공위성을 보내 「비너스」13·14호가 이룩했던 연구를 계속케할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으려했다.

대체로 미·소의 군사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우주전이 2천년대 초반에나 가능할것이고 그때는 우주군의등장과 함께 유인우주기지가 필요할것이라고 내다보는듯 하다. 하지만 오늘날 처럼 일장월취하는 우주경쟁추세로는 되려 더 당겨질 조짐마저 없지 않다 하겠다.

또 어느 미래학자는 인류는 초우주법인체를 갖고 그 본부를 우주궤도에 두며 어떠한 법의 적용도 배제하면서 자체군대와 경찰까지 갖추게 될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다.

「콜럼비아」호의 등장으로 강건너불격이 아닌 현실로서 한걸음 우리 눈앞에 다가선 우주공간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할때는 된것 같다.

海外토픽

湖北省에 野生人

★中共과학원 조사착수

온몸에 적갈색 털이 나있으며 보통사람처럼 직립해걸어다니는 이른바 「野生人」을 조사하고있는 중공과학자들이 최근 湖北省의 한 산악지대에서 숲속으로 사라지는 거대한 野生人을 직접 목격했다.

3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野生人이 워낙 빨리 숲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이때까지 야생인의 발자국, 머리카락·배설물및 기타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목격담을 수집했으나 과학원조사반이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北京=AP】

南極·南美는 한大陸

★化石발견으로 뒷받침

일단의 美과학자들이 최근 남극의 빙하대륙에서 사상처음으로 포유류와 파충류및 펭귄의 화석을 발견함으로써 6천5백만년전 백아기말기에 남극과 南美대륙및 濠洲가 붙어있었다는 종래의 학설을 뒷받침했다.

美국립과학재단의 후원을 받은 美남극조사팀은 남극북동단에 위치한 세이무르섬에서 포유류의 턱뼈와 이빨, 파충류의 해골, 펭귄의 뼈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워싱턴=AP】

百만달러 黃金사슬

★스페인寶物船서 발굴

17세기의 스페인보물선 아토차호 침몰해역에서 해저발굴작업중인 美잠수부들은 최근 플로리다州 키웨스트서방 64㎞의 수심13m해저에서 고리마다 다이아먼드·루비·에머럴드·진주등이 박힌 1백만달러상당의 황금사슬을 발굴해냈다.

지난 71년부터 이해역에서 발굴작업을 계속해온 보물탐사회사의 사장 멜·피셔씨는 한 잠수부가 15개의 고리로 된 길이 60㎝의 이 황금사슬과 60~1백개의 은화를 건져올리는데 성공했다면서 이사슬이 지금까지 아토차호침몰해역에서 찾아낸것중 가장 값진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웨스트(플로리다州)=AP】

外信알파나

◆佛프랑貨 全世界서急落＝프랑스전역에서 실시된 지방대의원선거에서 프랑스와·미테랑社會黨정부가 패배하자 22일 프랑스의 프랑貨는 달러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주요통화에 대해 急落勢를 보였다. 【파리=AP】

◆사우디遞信相, 금주내訪韓＝후세인·만소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체신상이 통신업무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주 한국과 臺灣을 방문한다고 관영 사우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바레인=聯合】

◆胡耀邦, 在美 중국인학자와會談＝中共과 臺灣의 통일은 中共의 3대기본정책 목표중의 하나라고 中共黨주석 胡耀邦이 22일 말한것으로 中共의 관영 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北京=AP】

科学短信

회장에 車奉五씨

대한漢醫協 定總

대한漢醫師협회는 지난 20일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에 車奉五씨(50·사진)를 선임했다. 부회장엔 韓基英씨와 金寬植씨가 각각 뽑혔다.

人間工學硏 창립

대한인간공학연구회 창립총회가 27일하오2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부 소강당에서 열렸다.

機械學會 학술대회

대한기계학회주최 재료·파괴부문 학술강연회가 27일하오1시30분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 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제6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명(미)·허윤정(진)·존주라(선)고보경(인기)양=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 지하실 좀 쓸어 주세요"
"지금 바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 두세요!"
"쿨"
"원참, 선택해서 하라고그런줄 알았는데!"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世界의 博物館

세계最多의 미술품
바티칸 박물관

들어서자마자 天障畵에 압도
넋잃은 觀光客 움직일줄몰라

로마에들르는 관광객들이 그많은 유적지와 미술관중에서 맨먼저 그리고 꼭찾는곳이있다. 세계에서 가장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있는 바티칸박물관이다.

바티칸궁전 뒤쪽에 자리잡고 있는 바티칸박물관은 입구가 여느박물관보다 초라해 보인다. 그러나 관람객들은 문안에발을들여 놓는 순간부터 말을잊어버리고만다.

미켈란젤로의「創世記」를 비롯한 천장화, 라파엘의 벽도, 아우구스투스大帝의 석상등을 대하면 그엄청난 예술과 역사와 권위앞에서 그만 압도당해버리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가 4년5개월간의 오랜작업끝에 1512년10월31일 4백50평방m의 천장에 완성한 천정화는 천지창조의 대서사시를 神韻감도는 필치로 재현해 놓은걸작중의 걸작.

천장한가운데 빛과 어둠을 가르고 해와 달 땅과 초목을 창조하는 장면, 궁창을 갈라 하늘과 물로 나누고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는 장면,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실락원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있다.

천장화를 완성한지 22년이 흐른뒤 59세의 미켈란젤로는 1년동안 필생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후의 심판 벽화를 완성했다. 진노의날에서 영감을 얻어 인류최후의날에 맞는 혼돈을 그린것.

라파엘의 방 역시 그가 남긴 대작 벽화들이 전시돼 있다. 정의와 신학, 시와 철학의 주제가 붙여진 네벽의 벽화는 다른방과는 달리 혼자서 완성한것이 특징. 이중철학을 상징하는 아테네학파그림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고대그리스의 유명철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라파엘의 맨마지막방인 콘스탄티노스 大帝의 방을 지나면 라파엘의 「복도」로 나오게된다.

섬세에나오는 52개의 일화들이 이복도에 생생하게묘사돼있다. 1519년 라파엘의 제자들이 그의지도아래 장식해놓은 것이다.

바티칸박물관이 지금의 모습처럼 정돈된것은 1882년 비오7세때 유명한 조각가 안토니오·카노바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미술품 수집을 시작한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르네상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티칸박물관은 현재 이집트관을 비롯, 역사관에 이르는많은 소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바티칸 도서관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바티칸박물관내 시스틴성당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최후의 심판」 천장화。 기독교미술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바티칸박물관의 자랑거리로 꼽히고있다。

이집트박물관에는 이집트인들의 미이라를 비롯, 그내부에는 석관 목관, 신성투구풍뎅이 모양의 부적등 갖가지 장신구와 神을 조각한 석상들이 진열돼있다.

18세기의 조각가 프랑조니의 작품인 유명한「2頭戰車」도 걸작품중의 하나. 전차의 바퀴과 오른쪽말은 기원후1세기것이며 왼쪽은 모방해서 만든것이라고한다.

또하나 유명한 작품은 「원반던지는 사람」으로 기원전5세기의 그리스조각가 미론이 제작한 것을 고대 로마시대에 와서 다시 만든것이다.

길이80m의 복도에 수많은 대리석상과 대리석관을 보관하고 있는 샹들리에회랑의작품들은 기원후 1·2세기것으로 추정되며 밑받침에는 파우누스神과 酒神 바카스의 무녀들이 아름답게 조각돼있다.

길이1백20m 폭6m에 이르는 지도의 회랑도 바티칸박물관이 자랑하는 코너중한곳. 13세때 건축가 오타비아노·마스케리노가 구성한 것으로 이탈리아 전역의 지도가 양벽면을 메우고 있다.

바티칸박물관은 뛰다시피 한바퀴 도는데도 몇시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이 박물관을 들러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리가 아픈것도 잊은채 다시 한번 발을담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게된다.

【李忠南기자】

親知에 한국일보를 보냅시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⑯
(題字 金蘇東)

30年代 프랑스 영화
現實감각 잘그려 映畵에의 동경高潮
학생시절의 꿈 아름다운 幻想세계로 극장마다 좇아다니며 빠짐없이 鑑賞

무엇이든지 내것으로 만들어보자는 무모한 정열은 어느새 성숙해졌다. 감상적인 소년의사고방식은 차차 정서적인 감각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습관으로 옮겨갔다.

그러한 전환기에 가장 감명깊게 본 작품은 프랑스영화들이다. 1937년까지의 프랑스영화들은 세계영화史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들이 많다. 서울에서 본「鐵路의백장미」는 무성영화시대에 세계를 풍미한 명작이다. 당시 서울장안을 감명깊게 흔들어놓았고 영화예술에 도취한 젊은이들은 두번, 세번 감상했다.

아벨강스는 감독은 지성과 이론을 겸비한 명장이다. 세계적인성격배우 에밀·야닝그스가 보여주는 연기역시 인간의 본능과 섭리를 처절하게 그려낸다.

아벨강스는 鐵路를 숙명의 인생으로, 기관차바퀴를 번뇌하는 인간에 비교했다.

그러한 감명을 회상하면서 당시 동경에서 개봉된 프랑스의 토키영화에 또한번 감동적인 쇼크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르네·클레르의「巴里祭」와「파리의 지붕밑」이 곧그것이다. 발성영화초기의 현실감각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없었다. 새로운 생활현실의 리얼리티 즉 언어와 음악과 사운드가 부가된 현실감각의 표현은 내영화예술에의 매력을 엄청나게 고조했다. 다른모든 예술장르들은 이제 낡은 유물들이라고 생각했다.

그후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프랑스영화의 황금기를 쭉 동경에서 보았고 또보았다. 르네·클레르의「自由를 우리에게」(31년)、쥴리안·뒤비비에의「홍당무」(32년)、자크·페데의「外人部隊」(33년)、뒤비비에의「몽파르나스의 밤」(33년)과「商船테너시티」(34년)、페데의「미모사館」(34년)과「女子만의 도시」(35년)、장·르노와르의「偉大한 환영」(36년)등.

그중에서도 쥴리앙·뒤비비에의「페페르모코(望鄕)」와「무도회의 수첩」은 세계를 놀라게한 불후의 명작들이다. 특히 영화예술의 극치를 다한「望鄕」의 라스트·신은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장·가뱅의 페페가 항구를떠나는 여객선을 향해서 목이 터지도록 애인의 이름을 불러봤으나 이때 출범을 고하는 기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온다. 갑판에서 페페의 출현을 기다리던 여인 갸비(미레유·바랑)는 귀를 막고 선실로 들어간다.

토키로써의 음향효과는 세계를 경탄케했고 영화애호가들의 흥분은 이보다 더 큰것이 없었다.

또「무도회의 수첩」은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코모湖변에서 未亡人크리스티느가 젊은날의 꿈을 찾아서 소녀시절에 무도회의 수첩에 적어놓은 추억의 사람들을 만나보기위해 떠나간다. 그러나 그들은 차례 차례 무참히도 깨어져간다.

마리빠, 알리·뮤, 루이·쥬베, 프랑소와즈·로제등 지금은 다 가버린 프랑스의 명우들이다.

◇나(中)와 영화구경을 같이 가곤했던 任薰彬군(右)。30년대 프랑스영화는 내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화려한 프랑스영화들은 내학생시절의 꿈을 아름다운 환상세계로 이끌어갔고 영화예술에의 용기를 더욱 큰것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흰 처녀지」、「망향을 가다」、「우리들의 친구」、「巨人 코렌」、「창살없는 감옥」、「환상의 마차」등등 프랑스영화황금시대의 작품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본셈이다.

그후 미처 보지못한 佛畵는 간다에 있는 2번관「南明座」에서 봤다. 마르셀·카르네의「제니의집」、마르크·아레그레의「처녀의 호수」、피에르·슈네르의「죄와 벌」、르네·클레르의「최후의 억만장자」등은 나자신을 성숙한 영화인도로 키워줬을 뿐만아니라 그시대의 영화애호가들을 열광케한 작품들이다.

프랑스의 토키를 개척한 클레르의「파리의 지붕밑」은 음악이 영화예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사했다. 현대영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우선 음악을 체득하는것이 필수조건이라는것도 배웠다.

그와 같은 충격은 후일 나로하여금 우에노(上野)에 있는 中央음악학교 작곡과에 적을 두게했다. 당시 瀟灑한校에 적을 두고 만주홍고방면으로 웅비해보려던 동창 任薰彬군(전 서울市長 任興淳씨의 장남)을 간다日活館에서 숭집으로 찾아가곤했다. 그와 같이 간다일활관에들어가 일본영화도 감상했다. 밤이 늦으면 영화관 바로 옆에 있는 그의 하숙집에서 자기도했다.

서울瑞草中 9명 西獨국제페스티벌 參加
유럽에 선보이는 中學生 강령탈춤

◇瑞草중학교 탈춤·체조반 학생들이 오는 3월말西獨 국제청소년 체조댄스페스티벌에서 선보일 강령탈춤의 말뚝이 춤을 연습하고있다。

우리나라 中學生탈춤·체조반이 유럽에 진출한다. 일반문화인도 아닌 10대중학생이 탈춤을 유럽에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화제의 대상은 瑞草중학교 2, 3학년 탈춤·체조반학생9명으로 20일~30일 西獨 레온베르그市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체조댄스페스티벌에 참석, 한국의「강령탈춤」을 선보인다.

서초중학교 李鍾珏교장에 따르면 이번공연은 지난해西獨정부가 한국외무부로 청소년 민속춤과 체조반의 참가 요청을해와 작년도 서울市주최 중등부체조대회에서 2위 입상한 서초중학이 초청된것.

·학생들이 참가하는 인터내셔널·체조·댄스페스티벌은西獨 슈투트가르트州레온베르그市에 위치한 알버트·슈바이처高校와 州정부가 주최하는 국제적 행사.

76년부터 세계청소년의 문화교류를 통한 친목과 체력증진을 위해 개최돼온 것으로 소련및東歐 남미 아시아등 20여개국이 참가했다.

서초중학교는 참가가 결정된 작년12월 학교의 리듬체조반을 행사성격에 부합하도록 탈춤·체조반으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강령탈춤을 가르쳐 왔다.

지난 3개월동안 강령탈춤 전수자 康大昇씨로부터 방과후 실기지도를 받아온 학생들은 흐트러지게 돌아가는 춤사위나 추임새가 프로급에 빠질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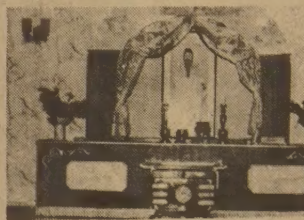
權赫成군(14·中2)은『우리고유의 민속춤을 각국청소년들에게 처음소개하는 것인만큼 바른춤사위를 배우려고 발목이 삐고 무릎이 깨져도 입술을 깨물며 열심히 배웠다』면서 우리들의 탈춤솜씨는 다른나라 민속춤을 압도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학생들은 강령탈춤 외에도 재즈체조와 한국민요를 소개할 예정.

이들을 인솔하고 19일 현지로 떠난 李昌鎬교사(40·체육)는『한국이 88올림픽개최국으로 초청된만큼 그기대에 어긋나지않게 한국청소년들의 높은 문화수준과 체력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崔成子기자】

「요정政治」密室 淸雲閣 「民族聖殿」으로 탈바꿈


◇한얼교가 최고급 요정이었던 淸雲閣을 매입, 檀君像을모신 開天宮으로 꾸몄다。

한얼敎인수 開天宮으로 改造
檀君영정봉안…一般공개키로

한때「요정정치」의 1급장소로 각광을받았던 최고급요정 淸雲閣이 檀君영정을 봉안한 聖殿으로 1백80도 탈바꿈하게 된다.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이사장 申正一)가 서울鍾路區淸雲洞53의26 淸雲각을 사들여 한얼聖殿과 開天宮으로 개조、오는 27일 하오1시개궁식을갖는다.

檀君을 開敎祖로해서 민족주체 정립을 내세우고있는 한얼교는 한얼聖殿과 개천궁을 마련、한사상의 보급장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지 2천3백평에 총건평 2백70평인 청운각의 싯가는 10억원쯤 될것이라는 풍문이나 산사람이나 판사람이 일체 거래액을 밝히지 않고있다.

4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2월초 이사한 한얼교는 요정의 인상을 씻어내기위해 한창 내부수리와경내를 단장하고있는중이다.

구식 2층 건물인 본관을 완전히 뜯어고쳐 대법당 교육장 세미나실 휴게실 VIP식당 접견실등으로 만들고 역시 완년의 요식점투성을 살려 2백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갖추었다.

성전은 법회랑 교육장으로 나누어 교육장에는 종교교양대학을 개설 한다는 것.

淸雲閣요정시절의 은밀한장소로 쓰였던 뒤채의별당이 檀君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개천궁으로 단장된다.

해방후 李始榮부통령 관사로 잠깐 사용됐던 淸雲閣은 趙且任씨에게 넘어가 자유당시절 정치인들의 사랑방이었다가 5·16후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70년대들어 수출붐을 타고 외국바이어들과 관광객들로 바뀌긴 했으나 10여년전 趙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난에허덕여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강화도 摩尼山과 大邱八公山 부산 東萊에도 본궁을 가지고있는 한얼교는 이번 淸雲閣의 중앙본궁 개궁을 계기로 적극적인포교활동과 교세확장을 펼칠 계획이다. 【周】

傳統의 培材中·高 터
코오롱건설에 77억원에 팔려

유서깊은 培材學堂이 코오롱그룹산하 코오롱건설에 팔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에의해 설립, 97년동안 中區貞洞34번지에 자리잡은 培材中·高校는 도심지 학교이전계획에 따라 江東區 逸洞에 새교사를 마련하기로하고 지난2월말 평당 1백65만원씩 모두 77억5천만원에 코오롱건설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코오롱건설은 주거래은행인 朝興銀行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고 培材측은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정식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한국일보
533-2361

한국일보 詩壇

梅花
朴致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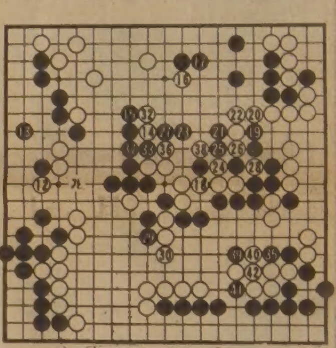
번더스런 봄날씨라더니
四月을 향한 문턱은
아지랑이 피듯 어지럽다

胎動은 행동의 始作이다
봄이 부산한 것은
봄 한가운데 자리잡자는 거다

간밤에 진눈깨비가 내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김께 내렸다
봄눈을 맞은 개나리 木蓮 라일락
진달래 철쭉
그중 매화는 밤새 꽃망우리가
가지마다 무수히 터질듯 달렸다

내집 울을 서성이며
잎보다 먼저 피는
매화의 화사하고 어여쁜
터져 피는 소리를 들으며
四月을 향한 문턱에 선거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7譜 112~142 (각5시간)



白 (4段) 姜 勳 〈3勝0敗〉
黑 (7段) 河 燦 錫 〈2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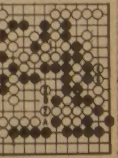
승부는 지금 중앙전투에 달려있다. 따라서 白12의 파괴수단에 대하여 黑13으로 귀를 지킨 수는 비록 다음에 黑「가」의 차단을 본다할지라도 (귀는 13을 안두어도 이대로 살아 있는 꼴) 역시 27자리에 가둬서 중앙을 제압해야 승리가 결정되는 마당이었다.

黑13으로 말미암아 白이 14, 16 다음 18로 잇게되자 사태는 뜻밖의 방향으로 줄달음쳤다. 게다가 黑23으로 25자리에두어 苦生을 피하지 않는 바람에 마침내 白24, 26으로 패가 발생했다.

더구나 패감을 선택하는데 河7단은 대착각마저 범하고 말았다. 黑35따위가 모두 헛패인것을 절대적이라고 잘못 본것이다.

이때문에 白이 黑35에 응수를 하지 않고 36 38로 계속 받자 하자 黑은 후속수단이 두절 되었다.

黑, 착각으로 憤敗



河7단은 그제야 고개를 갸우뚱 가로젓는다. 그렇지만 물은 이미 엎지른듯. 이제와서는 도리가없다.

자기자신에대한 짜증이 심한것같은데도 河7단은 그저 「허참 기막힌 일이군」하고 가볍게 혀를 찼을뿐, 내친걸음에 黑41까지 두어보더니 白42때 씁쓸하게 돌을 거두었다. 이다음 참고도의 黑1이하는 白8까지로 黑꽝. 또 黑1을 2쪽으로 놓아도 白1、黑「A」白「B」로 마찬가지. 31 34…패。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8>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②

거기 모인 수지의 하객은 시골서 올라온 외가식구들을 합하면 열명이 넘었다. 먼저 사회에 나간 수지 친구들이 몇명 더 어디 와있을테니 하객의 평균수인 스무명은 무난할 것 같았다.

그중 외할머니는 근래 많이 노쇠해서 이런 인파에 부대끼는 게 앉만해도 위태로와 보였다. 뫼시고나온 가족들이 주착스러워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나 같이 늙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외손들이 모두 노인에게 극진해서 보기좋았다.

수철은 볼때마다쇠잔해가는 게 눈에 보이는 외할머니가 속으로 많이 언짢아서 짐짓 명랑하게 너스레를 떨었다.

『할머니, 아직 정정하시죠? 수지가 대학졸업할 때 오셔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건강하셔서 대학원 졸업까지 보시어 좀 좋아세요?』

『내가 뭐 정정해서 불원천리 극터듬고 나선줄 아냐? 그 불쌍한 것이…』

외할머니 입엔 그 불쌍한 거란 소리가 노상 붙어있다시피했다. 수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수지의 각급학교 졸업식때마다 매년 돌아오는 생일때마다 외할머니가 한번도 안빠진것은 축하의 뜻보다는 죽은 제어미를 대신해서 그 불쌍한걸 조금이라도 덜 불쌍하게 해야한다는 비통한 의무감때문이리라.

수철이 그걸 누구보다도잘 알고있었다. 수철의 아내 영란이만해도 그 연세에 무슨 행사때마다 앞장서는 외할머니를 주착 노인줄으로 밖에 안생각했지만 수철은 가슴이 찡했다.

수철이 알고 있었다. 노인네의 흐린 안정(眼睛)이바라보고있는건 결코 축제의 인파가 아니라 유난히도 춥던 어느 겨울날의 피난 국도와 그위를 가던 마지막 피난민이라는 것을.

갑자기 흉칙한 괴조(怪鳥)처럼 머리위에 나타나 그들을 덮친 비행기의 엄청난 굉음과함께 각각이 찢긴 밤의 육신이라는 것을.

수철이 외할머니의 손을잡았다. 고목나무가지같은 보기와는 달리 말랑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내가 수고가 많았다. 그 불쌍한 걸 대학원 공부까지 시켜줬으니. 그 불쌍한 게 그래도 오래비 하나는 잘둬서 호강이 늘어졌지』

『할머니도 기뻐시죠?』

『안기뻐. 대학졸업할 땐 기쁘고 대견하더니만 이번엔 하나도 안기뻐』

『왜요,할머니』

『기집앤 대학공부까지 시켰으면 됐지 뭘하러 대학원꼴은 시켜? 내가 그 불쌍한 거 시집가는 거나 보고 죽어얄텐데. 이게졸업식이 아니라 결혼식이라면 좀 좋아. 계집애 공부 너무많이 시켜서 좋을 거 하나 없다. 그저 시집을 보내야 짐을 벗는 거야 알았냐?』

『네 할머니』

『알기만 하면 뭘해. 좋은 소식 없냐?』

이때 영란이가 챕싸고 총기있게 나섰다.

『할머님 오늘 어쩌면 손자사위감을 보시게 될거예요. 기대하세요』

『뭐라구? 나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됐어? 그러니까 우리 수지가 그 동안 연애전 신랑이 있었다 이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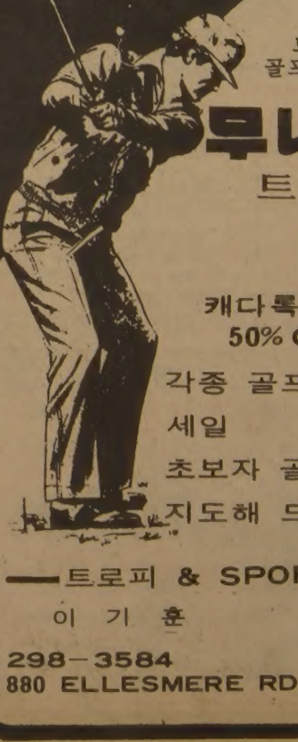
할머니는 구 근처에 신랑감이 있다는 소리로 알아들었는지 흐뭇한 눈빛에 생기가 돌면서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아녜요, 할머니. 고모가 워낙 새침해서 그렇지 눈이 높아 그렇지 연애도 못한는걸요. 그래서 제가중매를 서보려고요』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30PM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純潔의 次元을넘어서…이렇게 가르쳐주세요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文化部 張明秀 차장 崔成子 기자
◇LA支社 朴 琮 기자
◇社會部 申鉉鉦 기자 方畋俊 기자
◇寫眞部 李昌淳 기자 張啓文 기자

한국일보廣告:533-2361

10代의 性 왜 발등의 불인가

青少年들의 現場을 본다

高3 남27 여14.5%가 "經驗" 수치심·罪意識 마저 줄어가

18일하오3시 서울城北區松亭洞 吳피부비뇨기과 진료실。17세쯤돼보이는 밤송이머리의 청소년이 주뼛주뼛하며 진료실안으로 들어선다。청바지에 잠바차림이지만 일견학생임을알수있다。

『어떻게 왔지?』

『거기가 이상해서요』 10대의 대답은 머뭇거림이 없다。

『나쁜짓 했구만』

『그게 왜 나쁜짓입니까?』 10대는 대들듯 목청을 돋운다。

『그럼 잘한 짓인가?』

『잘한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야단칠것 까지야…』 말끝은 얼버무렸지만 뉘우치는빛은 찾아볼수없다。

『간호원、검사해봐』

× ×

15일 밤10시30분、서울 鍾路경찰서 형사계。3명의 10대소녀가 고개를떨군채 앉아있고 한구석에서 5명의 같은또래 남자애들이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형사계사무실밖에선 누군가의 보호자인듯한 부인2명이 수심에차 이들을 지켜보고있다。

『놀러가자니 순순히따라오던가?』

『네』

『그래서』

『가게에서 술을 사들고 근처 공사중인 연립주택의 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다음엔…』

이들은 모두 중학교3학년생들이었다。그리고 남자로부터 성병을 옮은 것을 안 소녀의 부모들이 경찰에 고발、조사를받고 있었다。

× ×

이것은 문제청소년의 비행을 그린 소설의 장면이 아니다。서울시내 어느 피부비뇨기과나 경찰서에서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의 한 단면이고 바로 오늘의 10대와 性문제의 현주소다。

性문제는 10대들에겐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열병같은 것이다。깜짝놀랄숫자의 청소년들이 지금 이 열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실상을 아는 비뇨기과 의사들、상담기관의 종사자들、그리고 일선교사들이나 수사관들 외에는 이 현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정면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조차 탐탁찮게 생각하고 있다。

병들어가는 10대를 못본체하거나 모르는 기성세대—10대의 性문제는 여기에 그 심각성이 있다。

10대의 性현장은 「설마」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鍾路2街에있는 P피부비뇨기과의경우 매일5~6명의 청소년들이 성병치료를위해 찾아오는데 그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西大門區滄川洞의 J의원에는 일반인과 청소년환자의 비율이 6대4에이르고있다。담당의사에의하면 그중에는 교복을입은채 찾아오는 당당한 학생도 많다。東大門區面牧洞에있는 M산부인과 의사는 성병치료는 물론 임신중절을위해 찾아오는 10대소녀가 한달에 20여명은 된다고 털어놓았다。

한연구논문은 구체적인 통계숫자로 우리에게 충격을준다。趙貞淑씨(43·여)의東國大교육대학원연구논문인「고교생의 성교육필요성에대한 고찰」은 지난해 서울시내 12개남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생1천2백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남학생의 27·1%、여학생의 14·5%가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경험의 대상자는 남학생의경우 여자친구가 48·5%로 으뜸이고 다음이 윤락여성(25·4%)、가정부(23·1%)의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남자친구가 62·1%、과외선생21·8%、학교교사10·3%등으로 나타났다。놀라운것은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51·5%)이나 욕구불만의 해소(23·8%)로 성을 경험、강제로 당하는 예는 11·2%에불과하며 경험후에도 다소 걱정하거나(32·0%) 전혀 개의치 않는다(28·1%)는 사실이다。

깊은성관계는 아닐지라도 남학생이 70·5%、여학생의 23·0%가 자위행위를 하고있으며 애무나 키스는 남학생78·7%、여학생 66·8%가 해본것으로 나타났다。

성문제는 학생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근로청소년이나 놀고있는 10대들의경우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없지만 지난한해동안 서울시내 각복지회를 통해 「기쁨의 집」에 입소한 입신여성99명중 공원이 40명、무직25명、회사원18명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의 열병을 앓는 10대의 수는 우리 사회의 개방 추세와 함께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生命의 전화는 40%가 性문제 性病 지식없어 藥남용 惡化

자극적 환경·價值觀갈등 원인…기성세대에 책임

아동복지회 상담실에 의하면 성문제로 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10대가 지난 75년의 경우 전체 1천6백37명중 1백24명으로 8%에 지나지 않았으나 77년엔 10·6%、78년엔 16·1%、79년엔 1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 복지회 상담부 직원 K모씨(34·여)는 『특히 과거엔 국졸 이하의 저학력 미혼모가 많았으나 최근엔 중·고학력자가 가장 많다』고 전하고 『미혼모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안타까와 했다。

복지시설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혼자서 처리하기 곤란한 10대의 예라고 본다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이다。각종 인생문제를 상담해 주는 생명의 전화를 이용、성문제를 상담하는 청소년도 많아 매일 1백여통의 상담전화중 20%가 10대의 전화상담인데 성문제가 40%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10대의 성경험은 그자체의 윤리성을 따지기이전에 그로인한 성범죄、미혼모발생、성병감염등 당장 시급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이중 성범죄는 청소년범죄중 폭력·절도와 함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성병감염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병에대한 지식이 없는데다 불확실한 상식만으로 손쉽게 구할수있는 항생제를 남용하는 바람에 치료는커녕 병을 더 깊게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심한경우 병을숨기고 항생제만복용하다 완치를 못해 노이로제까지 겹치는 예도있다。鍾路5街 B약국의한 약사는 성병으로 인한 노이로제 환자가 찾아와 상담을 요구하는 예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성범죄 미혼모문제 성병감염에 각각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지않다。성을대하는 10대의 태도 이것이 문제다。요즘 10대 사이에는 성을 호기심이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유희쯤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있다。따라서 그들은 상담실이나 병원을 찾아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에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여기에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10대의 성문제에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고 철저하게 대처해나가야된다는 절박감이 있는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10대의 성문제를 산업화、서구화、핵가족화의 와중에서 성에대한 新·舊가치관의 갈등에따른 일관되지 않은 우리사회의 성도덕관、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성전환、그리고 성교육의 불모현상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의 강화、가정·사회·학교의 관심으로 10대의 정서불안과 욕구불만을 해소해주고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건전한 이성교제의 기회를 줄것등을 주장하고있다。그러나 문제의 절박함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다。바로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성의 열병에 시달리고 희생되어가는데도。

【方畋俊기자】

◇10代의 고민가운데엔 性에 관련된것이많다。한국에서의 틴·섹스 문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그것은 「純潔」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의 차원이다。【19일하오 서울德壽宮에서】

水準에 맞춰 자연스럽게

중·고생들의 교복·머리형 자율화 방침과 함께 청소년들의 풍기가 문란해질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고교의 성교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교육은 어떻게해야 하는게 바람직할까。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지난70년대초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처음실시된 이래 여자중·고교에서 「순결교육」이란 이름으로 실시돼왔다。그러나 문교부는 올해부터 순결교육이란 말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으로사용하기 시작했다。

梨大 金在恩교수(교육심리학)는 지금 까지의 성교육은 순결교육이란 이름으로 정조관념이나 강조하는 범위에서 시켜왔던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아직도 많은 일선교사들이 「여학생이 남자친구와 3분이상 얘기를 하면 정학대상」이라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갖고 있음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성교육은 과학적인 성지식과 올바른 異性觀을 함께 가르쳐야 하며 현재 생물 체육 가사 윤리등 각 과목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흩어져있는 성교육의 내용들을 체계화한 교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金교수는 강조한다。

성교육을 위한 어려움은 교재의 마련과함께 전담교사의 확보라는것이 일선교장들의 공통된 지적。

서울시교육위원회는 현재 교사를위한 성교육지도요목서(要目書)를 편찬중에 있는데 오는8월말까지는 완성될 예정이다。

이책자는 40~50페이지정도로 국교에서 고교생까지 성장단계별로 성교육의 지침이되는 요목만을 수록할뿐인데 일선교사들은 이를활용하여 다시 세부적인프로그램을작성해야한다。

요목서 편찬을 맡고있는 金炳哲장학관(서울시 교육연구원 상담부장)은 『요목서 간행에 이어 더자세한 프로그램도 전문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져야한다』면서 『그러나 이작업은 많은시간이 필요한 어려운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성교육을 맡은 교사의 자질에 대해 崔玉麗 奬忠여중교장은 『여학교는 여자、남학교는 남자교사가 맡아야하며 그들은 인격적으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사인 동시에 과학적 성지식과 청소년심리、종교적인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과 품성을가진 교사여야한다』고 말하고있다。

또 崔교장은 가급적이면 기혼자로 사춘기의 자녀를 두고있는 부모라면 더좋을것이라고 말한다。

교내 성교육과 카운슬링을 자신이 직접맡고있다는 崔교장은 『성교육은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할 필요없이 학생 풍기가 매스컴등을 통해 사회문제화 되었을때 그실례를 들어 자연스레 교육시키는것이 효과적이더라』고 말하면서 중학교의 경우 성교육시간은 1년에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체계화된教材·專門교사 반드시 필요

家庭·학교·社會가 힘합쳐 종합教育을

異性을 건전하게보는 眼目 길러줘야

사춘기의 低齡化에 따라 문교당국은 올해부터 국민학생까지도 성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성교육의 내용은 국민학생의 경우 『몸을 청결히 하자는 것에서부터 동식물의 예를들어 모든생물은 남녀의 성을 갖고 있으며 兩性의 조화야말로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이란것을 가르치는것이 좋겠다』(水色국교 金鎭福교감)는 의견이 공통적。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성교육은 보다더한 중요성을 갖는다。

여중생의 일기장에는 「데이트」「미팅」이란 말이 예사로 발견되고 불행한 경험을 상담해오는 일도 적지않다는것이 일선교사들의 얘기다。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10대들의 자살극은 엄핏보아 어른들이 이해못할 사소한 동기에서 비롯된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성관계로인한 성격파탄등의 사연이 있는경우가 많다。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느끼는 성의 충동이 강렬한 반면 지식은 얕아 맹목적인 사고의 위험이 높다。廣津中교장 金順五교감은 『어느정도 자기방어의 능력을 가진 고교생에 비해 이들에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크다』고 말하고있다。

중학생들에 대한 성교육내용은 남녀신체와 性意識의 발달、성욕、이성교제、성도덕과 순결의 가치와 필요성、성병의 무서움등이 망라되어야하며 고교생들에게는 임신과 분만의 상식、유전、성행위와 결혼、가정생활에서 가족계획까지 광범위하게 짜여져야한다는것이 일선교사들의 의견。

성교육은 異性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기가 타고난 性에대한 불만이나 우월감을 갖지않게 하는것이 대전제가 돼야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남녀학교에서 꼭 같은 비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의 남자고교인 S고교 교장 P씨는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본교 졸업생중에서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 교육을 의뢰해볼까 싶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대부분 남자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학교에 비해 열하다。

학부모 李昌德씨(48·서울城東區九宜洞231)는 『남녀학생이 건전치 못한 관계를 빚었을때 여자는 피해자가 되고 남자는 가해자란 위험한 사고방식을 뿌리뽑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성의 평등을 가르치기 위해 남자학교에서도 여학교와 똑 같이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梁貞愛씨(50·서울鍾路區明倫洞)는 『성교육을 새로 시작할때 처음부터 노골적인 성지식을 가르칠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학생들이 성에대해 얼마만큼 알고있나、구체적으로 알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이나를 설문조사등을 통해 파악한 다음 정도에 맞춰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서울시교위 洪株중등교육과장은 성교육의 제1조는 『「不」는 아이에게가르쳐주라』는 것이라고 지적、영화나 슬라이드필름등 시청각보조재료로 집단교육에 일률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오는 학생들에게만 상담을 하여서 보여주는것이 효과적일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학부모나 교사들도 시대감각에맞게 성교육을 스스로 배우는 열의를 가져야 자녀와 제자를 위한 스승이나 카운슬러가 될수있다。

둘째 문교당국은 성교육을 위한 교육기술과 자료의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야한다。

세째 어려서부터 건전한 남녀교제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이것은 사춘기에 갖는 이성에대한 충동을 건전하게 승화시키는 능력을 기르기위해 꼭 필요하다。

네째 남녀공학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남녀공학인 학교에 비해 別學인 학교에서 불미스런 문제가 더많이 발생한다。(이상 梨大 金在恩교수의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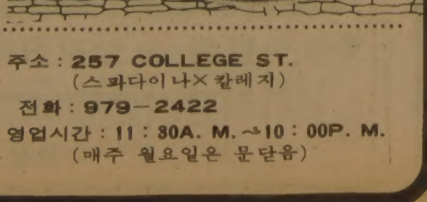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려면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사회가 한덩어리가 되어 종합적인 교육을해야겠지만 현재의 학부모들이 성교육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본적이없는 세대들이고 보면 우선 학교가 주축이되어 올바른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것이 최선의 길이다。

【申鉉鉦기자】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킨)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979—2422
영업시간: 11:30A.M.~10:00P.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13만8천불.
○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11만불 가격: 5만5천불.
○도넛샵
주매상: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6만5천불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66-1546(R) M3B 1Z3

實像의 性으로

男女高校生 6명의 좌담회

"호기심·갈등 풀어줄 떳떳한 教育 원한다"

人間은 지나온 날들을 쉽게 잊는다。性을 경험한 사람은 性을 경험하기 이전의 불안과 호기심을 잊고, 어른들은 사춘기에 자신을 괴롭히던 性의 고민을 잊게된다。그래서 청소년들이 겪는 性문제를 「부당한것」으로 치워버린채 그들이 性에대해 무관심하기만을 강요한다。이번 새학기부터 새로운 성교육지침서가 나왔고, 점차적으로 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그러나 성교육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은 공연히 불안하고 편안치가 않다。이 「편안치 않은 마음」때문에 성교육은 바른 궤도를 순조롭게 달리지 못하고, 조그만 잡음에도 삐꺼덕 거리게 된다。성교육의 당사자들인 청소년은 이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YMCA 청소년클럽에서 추천해준 6명의 男女高校生들은 밝고 솔직하게 그들의 고민과 요구를 들려주었다。그들의 좌담내용을 중계해 본다。

◇참 석 자

申鉉姬	(금란여고3)
吳俊旼	(배재고2)
李玉俊	(이화여고2)
鄭美淑	(덕성여고2)
趙永三	(숭실고2)
韓眞奭	(신일고2)

◇때와 장소＝3월18일 한국일보社 회의실

물어볼데없어 불안·답답
바르게알면 脫線도 줄어

◇「10대의 호기심과 갈등을 풀어주는 구체적이고 솔직한 성교육을 원한다」고 강조하는 고등학생들。오른쪽으로부터 趙永三、李玉俊、吳俊旼、鄭美淑、韓眞奭、申鉉姬。

初經 미리 안알려준 어머니에 섭섭
女子에만 純潔 강요말고 男子에도…

避姙法만 가르치면 전부인가

性정보 洪水에서 보호를

"숨김없이"가 逆効낼수도 결국은 人間교육이 문제

비국을 다녀온 친지로부터 그쪽 엄마들의 아침마다 등교하는 사춘기 딸에게 챙겨주는 임무가 도시락과 피임약이더라는 소리를 전해 들은지가 고작 1、2년쯤 되었을까。

그때만 해도 그소리가 어지간히 해괴했었다。

동시에 어차피 우리에게도 미구에 닥쳐올 피치 못할 현실임을 예상은 하면서도 그래도 당분간은 하고 한가닥 위로로 삼았었다。

그러나 그 거센 물결은 어느새 들이닥쳤고 우리의 발등에도 불똥이 떨어져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女流作家】

한국일보 특집판

10代의 性 왜 발등의 불인가

外交史料수집 84년까지 電算化
올해엔 마이크로필름에 담기로

정부는 外交史料를 외교목적수행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기관별로 분산 보관돼있는 외교史料를 체계적으로 정리, 이를 電算化할계획이다。외무부는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國史편찬위원회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외교文書의 수집과 분류작업을 추진중인데 수집된 외교문서를 금년안에 모두마이크로필름化하고 오는 84년까지 電算化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관계자는 23일 『對外교섭에 귀중한 자료가되는 외교史料가 지금까지는 각기관별 또는 局·課별로 분산보관되어 이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지적하고 『각 기관별 또는 局·課별로 분산보관돼있는 외교문서와 史料를 마이크로 필름化하거나 電算化함으로써 외교목적수행에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오는 4월2일 외무부,國史편찬위원회및 국회도서관등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갖고 외교史料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記者의 눈
海外여행 經費의 逆調

【金勝雄기자】

中共 또 비난 ISF사무국장에

【北京22日AP＝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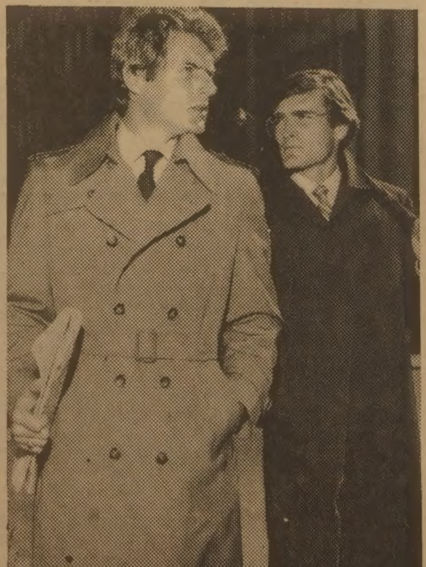
中共서 變更요구검토 소프트볼大會 개최지

專任코치制 盧長官 다짐

서울 올림픽本部 건물設計공모

朴大雲 優勝 空氣소총 團體戰서도
멕시코國際射擊

【멕시코시티22日AP＝聯】



○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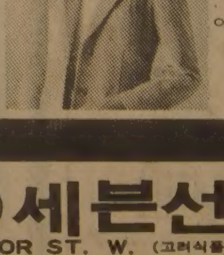
값이 시중가격의 반액입니다.

빅·세븐 선물센터가 드리는 LONDON FOG

봄맞이 코트 대매출

남자 LONDON FOG $80.

세무봄잠바 $90.



○울트라스웨드 남자용 $349.

○울트라스웨드여자용 상하복 $349.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본점에서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일절, 녹용제품, 할인판매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차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한국연속극 염가로빌려드립니다
온가족이 한자리에서 즐기실수 있는비디오

빅 세븐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 테프와 비데오 테프 다량입하!!

○생활의 활성화는 빅세븐이 직수입한 녹용제품으로!

우리집의 性교육

가장 이상적인 성교육장은 가정이고 부모는 가장 훌륭한 교사일수 밖에 없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사랑과 순결의 참뜻을 배우기때문이다. 『우리 집은 자녀들의 성교육을 이렇게가르치고있다』는 다섯가정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성교육방법과 그 실태를 알아본다.

"스스럼없는 對話분위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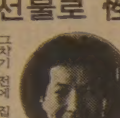
▲曺圭常박사(가톨릭大學長)

‖성기의 구조나 피임방법을 가르치는것이 성교육은 아니다. 성의 윤리, 올바른 사랑, 가정의 참뜻을 알게해야 한다.

우리집의 경우 4남매중 위로 셋을결혼시켰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자녀들이 밖에서 있었던 일, 스스로 느꼈던일등을 어머니에게는모두 얘기할수 있는 스스럼없는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 자녀를 엄하게 다스리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다. 물질만능 풍조에 물들지않도록 남녀간의 사랑은 인격에 바탕을 둬야한다는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었다.

혼인에는 자녀의 출산 양육의 책임이 뒤따르게되고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협조를 위한 엄숙한 계약이요, 한마음이 되어야한다는점을 가르치는것이 바로 성교육이라고 본다.

"中學입학 선물로 性에 관한 책"



▲韓良順교수(延世大·체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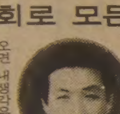
‖아이들이 중학에 들어갈때 남녀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책을 기념으로 사주었다.

책을읽고난아이들이 여성의 생리, 순결문제, 임신과정등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왔고 나는 힘들지않고 소설속의 내용도 덧붙이면서자세히설명할수있었다.

성교육은 처음부터 탁터놓고시작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에게 이성 친구로 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누구냐」고 묻는다. 그차기 전에 집에오도록 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해주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집 아들과 딸도 학교부터 이성친구들이 놀러와서 나와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가고 공부도 같이하곤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성교육을 개방한데도 아들은 결혼을 극구주장해서 중매로 갔고 대학졸업반인 딸도 중매를 원하니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土曜토론회로 모든 얘기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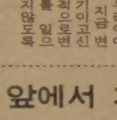
▲金英積씨(詩人)

‖「성교육」이라는 낱말은 풍성하게 사용하고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성교육이 안돼있는게 우리의현실이다.

나는 高1 中1짜리의 두아들을 두고있는데 매주 토요일 저녁시간에 생활토론회시간을 갖고있다. 물론 아내도 참석한 가운데 그주간에 일어났던 일을 스스럼없이 서로 얘기하고있다. 이시간에 아이들이경험했거나 책에서 읽은 이성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내생각은 이렇다는식으로 자연스럽게 해답을주도록 유도하고있다.

아이들은 내소유가아니므로 성장하는 인격적개체로서 특징과 장점을 살려주려 애쓰고있다. 이같은 세심한 배려에 앞서 중요한것이 부모의 모범적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앞에서 부부가 폭력을쓸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때문이다.

"性은 罪惡아닌 자연스런 慾求"



▲盧瑛淑씨(소설가)

‖아빠의 장기간 해외 체류로 혼자 中2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걱정했으나 별로 어려움은없다. 성이 죄악이아니라 자연스런 인간의 욕구라는 방향으로 가르치고있기 때문이다.

맘에드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되도록 집에 데려오도록 했더니 가끔 여자친구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면 차를 대접하고 음악을 들려주기도한다.

우리아이는 지금 변성기이고 신체적으로변화를 일으킬때여서 수치심을 갖지않도록 신경을써주고있다. 그러나 올여름에도 같이 목욕을 시키며 그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고 건강한것임을 인식시켜줄 계획이다.

최근 아들이 다른 친구들의 포경수술을 계획한다고 나무라는 말을하자 『그건 전혀 망측한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것이다. 너도 해야한다』고 설득시켰다.

"子女들 앞에서 가벼운 포옹도"

▲李英子씨(주부·冠岳區南峴洞)

‖나는 대학1년, 고교2년, 중3등 모두사춘기에 해당하는 아이셋을 키우고있다. 우리 부부는 특별히 性교육이라는 말로 가르치거나 알려주는것은 없다. 다만 남의 집의 경우와는다르게 부부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손을어루만지고, 가벼운 키스를 하곤한다.

아이들은 엄마·아빠의 이같은 모습을 예사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있으며 TV영화에서 사랑의 장면이 나와도 「당연한것」으로 스스럼없이 보아 넘기는 것같다. 아이들은 性지식을 책과월간지를 통해 어느정도까지는 다 알고있는것 같으며, 그들이 그런 책이나 잡지를 읽고있으면 그대로 버려둔다. 이미 어느 수준까지는 세세히알고있는 性문제를엄마·아빠에게 의논해오거나 질문해온적도 없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虛像의 性에서

美의 골치..틴 섹스

제인은 올해16살난 캘리포니아주 한고교2년생이다. 전화로도 가명을 꼭써달라고 몇번 다짐한후 자신의 성경험을 털어놓았다.

오래사귄보이프렌드존과는 가끔 성관계를갖는다. 이혼한 제인의 어머니가직장에 나가므로 방과후 존과함께 돌아오면 집은 늘 비어있다.

피임법은 알지만 행위때마다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냥 존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내친구들도 다그러는걸요. 물론 엄마에게는 비밀이에요』

미국의 청소년 성문제는 심각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을 일상생활의 한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만연되어 있는것이다.

청소년문제 조사기관인 앨런·커트메카연구소는10대의 성문제를『유행성』이라고 부르고있다. 동 연구소의 81년3월 통계숫자를보면 이런 극단적인 표현에 수긍이간다.

전국의 15~19세까지의 하이틴인구 2천1백만명중 성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절반이 넘는 1천1백만명이나 된다. 남자가 7백만, 여자가 4백만이며 매년 1백만명의 10대소녀들이 임신을 하고있다.

임신한 1백만명중 76년을 예로 들면 30만명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26만명은 미혼모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중절수술을 받거나 유산했다.

성병감염률도 높다. 매년 보고되는 1백만명의임질환자중 15%가 하이틴에 속하며 70년대후반부터는 11~15세 연령 그룹의 감염률이 급증하고있다.

이런추세의 통계가 70년대후반 처음 발표되자 막연히 성개방풍조에따라 10대들이 조숙했다는 생각을 갖고있던 미국인들도 놀랐다.

좀더 본격적인 대책이필요하다는 여론이비등했다.

77년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후 백악관에서가진 퍼스트레이디의 첫 기자회견때 로절린여사도 당시 9살인 딸 에미의 성교육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때 로절린 여사는『난 집에서 에미와 성문제에관해 대화할수있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에서도 에미가 성교육을 받기를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요』라고 대답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의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실시되어야한다고 누구나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실천에는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가뒤따른다.

77년까지 미국에서 성교육이 공립학교의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있는州는 메릴랜드州 단 하나였다.

현재도 하와이, 켄터키, 미시간, 미주리, 노드다코타, 뉴저지와 워싱턴 DC등 소수의州들만이 필수과목으로 성교육하과를 마련하고있다.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10대 半이경험, 年임신 百萬

性病환자 15%가 하이틴…15歲이하도 急增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다른 대다수의 州들과 마찬가지로 성교육이 각학교재량에따른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다고 로스앤젤레스교육국건강교육담당관 루스·리치박사는 말한다.

『반드시 부모에게 교과내용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규정하고있읍니다. 내용도 대부분 신체발달성명에 그치고있지요』

섹스가 범람하는 사회속에 노출되어있으면서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섹스문제는 금기로삼고, 학교에서의 공공연한 성교육은 오히려 「순진한 내아이에게 그릇된호기심을 부추게한다」는 태도를가진 부모들이 의외로 많기때문이라고 리치박사는 설명한다.

성교육이 필수화된 교육구에서도 그실시내용은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실시교육구의 60%이상이 피임안내를 교과내용에서 제외시키고있으며 뉴저지교육구는 유치원서 시작되던 성교육을 학부형들의 압력에 의해 국교6학년부터시작하고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교사들을위한 성교육 안내서발간이 제안되었다가 빗발치는 여론때문에 철회된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담사자들인 학생들은 학교의 극히 단편적인 성교육내용에 불만이많다.

그래서 실제로 그룹토의로 들어가면 그내용은 피임, 중절, 자위, 동성애등의 주제를 다루게되고 실제로 「어디까지가 적당한선인가」「사랑없는섹스」등 윤리적토론까지로 깊어지게 마련이다. 『내가 알고싶은것은 좀더 구체적인 피임방법이니까요』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여학생들이 많다.

성교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성병문제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건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필수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중학교부터.

『영화와 도표를 보여주고 안내서들을 나눠주며 성병의 증세와 후유증등을 설명해주는 정도이며 성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콘돔을 사용하라는 예방책을 설명하지만 자연 피임교육을 겸하게 됩니다』

LA카운티공중보건교육담당관 다이애너·세일러씨는『증세가 나타나면 조기치료를 받으라는 것을 현상태에선 가장 강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른 질병의 경우 미성년이 치료를 받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하나 성병의 경우엔 12세이상이면 누구나 정부운영의 무료병원에서 비밀리에 치료를받을수있다.

피임약도 마찬가지다. 78년 의회가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도 연방정부의 병원에서 피임처방을 받을수있도록 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얼마전 보수적인 레이건행정부는 미성년자에게 피임처방을한 10일이내에 부모에 알리도록하는 새규정을 의회에제안,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있다.

리처드·스와이커보건후생장관은 그의 제안이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10代의 성문제를 줄이기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일선관계자들은 대부분 반대하고있다.

제안직후 LA데일리·뉴스紙가 탐방보도한 고교1학년 건강교육 학급의 반응도 대체로 반대쪽으로흐른다.

『그런 법률정도로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는것을막지 못해요』(16살 여학생의 의견)

『만약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면 정부병원에는 가지않을 거에요. 그러면 임신율만 높아지겠지요. 왜 남학생들이 약방에서 콘돔을 살 때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지 그래요?』라고 반문하는 17살여학생의 의견은 한층 도전적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교육 조정관 다이애너·세일러여사가 청소년들이그린 성병관계 포스터를 보여주고있다. 성병강좌는 캘리포니아州내 공립학교 필수과목으로 예방치료방법을 가르치고있다. 【LA지사=朴璨기자찍음】

관대한 사람도 "대책시급"

性교육 방법·범위싸고 州마다 논쟁거듭

현재 정부운영병원에서 피임처방을 받는 환자의 45%는 18세이하의 소녀들.

이번 제안이 10대의 임신율만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각계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다.

학교가 아직 성교육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각지역사회별 계몽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한인교포사회내 교려보건재단 청소년문제 사무국장인 의사崔明姬씨는『가족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을위해 보다상세한 계몽과 안내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전화, 하트·라인, 세미나, 그룹토의, 개인상담이 각기업별로 행해지고 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각종안내서들이 무료 또는 아주 싼 가격으로 배부되고 있다.

안내책자들의 내용은 다양하다.

『10대엄마가 되는데 따른 난관』「가정에서의 성교육」「10대의 性(?)」「노(NO)라고 말해도 괜찮다」「책임있는 남성」「사춘기이전의 성에 대한 대화」등이다.

내용에서 「하지말라」「나쁘다」등의 경고나 훈계는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있는 행동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스스로 하는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지 이해하는 자세로 그들의 성문제를 들어줄 수 있는 대화의 문이 이곳에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하며 필요할때는 항상 도움을 줄수 있도록 대기하고있읍니다』

그러나 한인청소년을 상담할 때는『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역시 하지말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게된다』고 崔明姬씨는 말한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하고있지만 아직도 75~90%의 청소년들은 성에대한 지식을 친구들에게서 얻는다고 말한다. 바꾸어말하면 그릇된 지식도 적지않게 흡수한다고 볼수 있다. 그중에서도 피임에 관한 지식이 특히 그렇다.

LA性안내하트·라인담당자 조·프리드만은『대부분의 소녀들은 첫경험에선 임신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지식을 갖고있다』고 말한다.

콘돔대신 샌드위치용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콜라등소프트·드링크에 정자를 죽이는 성분이 포함되어 피임제로 활용할수 있다고믿기도한다.

『성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담당자는 역시부모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성교육을실시할 수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읍니다』

리치박사는 부모들의 책임과각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피임방법등 지제안에대한강력한반대에서 엿볼수있듯이 부모와 성에관한 대화를 나눌수있다고생각하는 청소년은 20%에불과하다.

반면 자녀들에게 직접성교육을 해주고싶어하는 부모들은 70%이상이며 41%는『그러나 자녀쪽에서 원하지 않기때문에 못하고있다』고 털어놓는다.

이런 추세에따라 부모들을위해 성교육안내계몽이 활발한것도 요즘의 한경향이다.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외부에서 얻는 일반적인안내에 그치지않고 개인에따른 가치관을 정해, 청소년들에게 예스와 노를 분명히 결정할수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때문』이라고 시라큐스대학의 가정교육연구소장 솔·고든교수는 말한다.

청소년들의 섹스풍조원인이『친구들이 다 그러니까…』에서 비롯된 유행성향을 지닌만큼 뚜렷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개개인의 가정교육에 의하지 않고는 예방하기가 어렵기때문이다. 【LA支社=朴璨기자】

流星의 山賊

<340>

李炳注作　李友範畵

風前의 燈火 ⑮

자수가 계남을 훈계하고 있는 자리에 김달손이 허겁지겁 어디론선가 나타나더니 계남을 보고 반색을했다.

「나는 자네가 이일이나 신립의 휘하에 있는줄 알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 반갑구나」

이 말을 듣고 자수는

「김공 무슨 소릴 그렇게 하는가」

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아닐세. 패전(敗戰)에 휘말려 무인(武人)의면목을 떨어뜨려서야 되겠나. 우리 계남은 연전연승하는 장군이 되어야 하는거여」

하고 김달손은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뭏든 그 패전에 끼이지 않은 건 다행이었어. 이일의 군사와 신립의군사가운데 지금 쯤 흐트러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거야. 그걸계남이 수습해서 정병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상감 호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왜놈을 직접 쳐부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왜놈은 30리허, 또는 50리허에 병참을 잔류시키고 있으니 그걸 쳐부수는거다. 면 잡아 여기도 전지가 될걸세. 계남의 생각이 어떤가」

김달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자수는 그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고 계남에게 일렀다.

「너는 나가 이일, 신립휘하의 잔병(殘兵)들을 수습하도록 하라. 나는 여기서 근왕병을 초모하여 우리 인성을 지키겠다. 들으니 네 아우 제(霽)는 상감을 호종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내아들 다섯 가운데 하나가 상감을 호종했으면 그로서 됐다」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데 말발굽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기마병 수인이 마을로 들어오더니 자수의 집 앞에 섰다.

계남이 황급히 뛰어나갔다.

기마병 가운데의 한사람을 계남은 곧 알아볼수 있었다. 먼지와 땀이 범벅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조인식(趙寅式)이었다.

같이 통신사의 수원으로 일본에 간 사이며 조는 특히 창술(槍術)에 능한 사람이었다.

계남이 말을 하기에 앞서

「홍부장님 마침 계셨군요」

하고 반가와 어쩔 줄 모르는 듯 말에서 뛰어내렸다.

『조대정,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며 계남이 그의 손을 잡았다.

계남이 조인식을 대정(隊正)이라고하는 것은 그계급으로 통신사의 수원이되었기 때문이고, 조인식이 홍계남을 부장(部將)님이라고 부른것은 계남이 부장으로서 통신사의 수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장이면 종육품(從六品)의 계급이다.

조인식과 그를 따라온 군인들에게 물을 먹이고 요기를 시키는등 각별한 배려를 하고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죽산(竹山)과 진천(鎭川) 근처의 산속에 이일, 신립의 패하였던 군사 2백명 가량이 지휘자를 잃고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대강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노라고 하여 이 길로 왔는데 이 근처가 홍부장님의 고향이라고 듣고 혹시나 들러보려고 온겁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계시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군사들도 홍부장님을 모신다고 하면 모두 용기백배할 것입니다』

조인식은 이어 자기가 겪은 전투얘기를 시작했다. 듣고 있는 모두들 눈물을 글썽하면서도 주먹을 쥐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3월 28일자

주간女性

다이어트중엔 金秋子 임신 6개월說
―봄에 결혼하는 人氣탤런트들의 사랑 夜話
禪畵展 연 괴짜 한의사 行脚
다이애너妃의 비키니 波紋
개그우먼 李聖美 靑春 고백
컬러 특집 봄 하이 패션
꽃 마음 심는「꽃씨 아줌마」
요즘 流行하는 운동화 百科
今週의 焦點「현대인 健康」
金甫姸이 숙탕서 한바탕 肉彈戰 벌인 까닭
結婚날 잡혀 놓고 酒池肉林서 흥청망청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토론토시

쓰레기 수거일 변경

GOOD FRIDAY = 4월 9일, 1982
EASTER MONDAY = 4월 12일, 1982

위 2일은 쓰레기 수거가 없읍니다. 4월 5일의 주및 4월 12일주 쓰레기 수거 변경은 다음과 같읍니다.

4월 5일 주: 목, 금요일 정기 쓰레기 수거는 하루 먼저 수거됩니다.
월(5일)… 정기 수거
화(6일)… 정기 수거
목(8일)… 수요일에 수거됨 (7일)
금(9일)… 목요일에 수거됨 (8일)

4월 12일 주: 월, 화요일 정기 쓰레기 수거는 하루 늦게 수거됩니다.
월(12일)… 화요일에 수거됨 (13일)
화(13일)… 수요일에 수거됨 (14일)
목(15일)… 정기 수거
금(16일)… 정기 수거

신문뭉치는 수요일(4월 7일)에 수거되며, 부피없는 쓰레기도 이날 수거됩니다.
신문지아닌 것 또는 부피있는 쓰레기는 4월 14일(수)에 수거됩니다.
정기수거(신문지, 부피있는 쓰레기)는 4월 21일(수)에 수거됩니다.
정확한 날에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기사항: 토론토에 유리및 쇠붙이 저장소의 18군데 재생 공장이 있읍니다. 2월중 242톤의 신문지, 36톤의 유리, 7톤의 깡통이 수거됐읍니다.
★더 이상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367-7742.

'82~'83 재미교포사업의 길잡이!!

재미한인 기업년감

재미한인 기업년감 편찬 발행 취지

한국일보 뉴욕지사에서는,한국 및 북미에서 날로 발전하여 가는 한인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경제 정보를 교환제공하고, 기업체 사이에서의 상호 협조 및 유대 강화를 돕기 위하여서《82—83 재미 한인 기업 년감》을 편찬 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사업은,한국일보 뉴욕지사가 주관하고, 북미 안에 있는 한국일보 전 지사들이 협조하여서, 가장 정확한 재미 한인기업 년감을 편찬할 것입니다.

이 년감을 통하여서, 현재 북미 안에서 운영 발전하고 있는 한인 기업체들의 현황, 기업 경영의 개선책 및 국제적 경제력을 쌓아 올림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80년대의 한국 경제발전과 한인 기업의 발전 면모를 직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재미 한인 기업가들이 앞으로 이룩하여 가야 할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함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한국 기업체의 재미 지사들은 물론이고, 북미 안에서 이룩한 주식회사와 그 지사들, 그리고 개인 기업체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체들이 이 편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뜻하시는 바의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　상: 북미한인 기업체와 북미 주재 한국상사, 지사 및 개인기업체 (카나다 포함)
신청마감: 1982년 4월31일
접수방법: 한 기업체가 신청서와 신청비 $100를 동봉하시면 됨
특　전: 년감이 발행되면, 년감 1권을 우송하여드림 (송료 본사 부담)
제출처: THE KOREA NEWS, INC.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42-22 27 TH ST, L.I.C, N.Y. 11101
(212) 784-4500

목차

1.수록 기업의 기준
전미주 기업체 주재상사, 지사, 합자회사 일체를 대상으로함.
2.업종분류
전미주에 미정부, 주, 시로 부터 등록된 기업종류에 대체를 따랐음.
3.수록 순서
업종별로 가나다 순서에 따랐고 한기업체가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을때는,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삼음.
4.자료 수집 방법
직접조사(방문, 전화문의)와 간접조사(우편, 협회, 단체, 관련업체)에 의존함.
단: 상기 방법으로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역 한국일보 신문 혹은 자매지에 보유된 자료로 사용함.
5.부록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료

'82-'83년 재미 한국 기업 년감 신청서

대표자명 (영어)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특별시 (도)　시 (군)
사업명
설립 년월일　년　월　일
경영 형태　개인경영 ( )　주식회사 ( )
자본금 $
본사
종사원수　전화 ( )
주요취급은행
사업내용 (상세히)

※CHECK나 MONEY ORDER로 TO :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주관 : 한국일보 뉴욕지사

42-22 27th ST. L.I.C.,N.Y.11101　TEL. : (212)392-5671(임) (212)784-4840(임)

이름난 韓屋의거리 住民들은 울고있다

全州市 교동·풍남洞일대

「百濟문화권」에 묶인지 5년: 물거품된 觀光地

開發계획 낮잠… 집손질 못해

값만 뚝 떨어져 財産손실 커

여기는 移動讀者部

【全州=裵琪哲기자】 전북全州市 校洞과 豐南洞일대, 호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이름난 한옥의거리다. 李朝의 발상지라는 梧木臺에서 내려다보면 청태가낀 기와를 이고 네귀를 반짝쳐든 고풍스런 기와집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일렁인다. 일정때는 淸水町이라 불렸던 이마을은 옛날부터 호남평야에서 호령깨나하던 양반 토호들이 모여살던 귀족마을이었다. 이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토박이들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때문에 지금사는 주민들은 큰 고통을받고있다.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이란 그럴듯한 명분아래 全州市가한옥보존지구로 묶인지가 5년째。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해야할것인지 이를 지정한 행정당국이나 주민이나 아무도 방법을 세우지못한채 일체의 손질을 금지하고있어 자기집을 주인마음대로 고칠수도 없는 「재산권행사금지구역」이라는 원성을 사고있는것이다.

◇梧木臺에서 내려다본 全州의 한옥거리。 全州시민의 민원이되고있다。

全州市는 77년4월18일 고도의 옛모습을간직한 이거리를 문화재적 가치가있어 보존해야된다고 결정, 도시계획법(18조 지구의지정)에 따라 全北고시 제73호로 묶었다。 물론 보존을해야된다는 여론에 따른것이었다는 설명이지만 고시로 묶기전 주민이나 지역사회대표들간의 의견교환, 또는 문화재전문가들의 공청회한번 열지않은 일방적인 여론」이 었고 주민의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않은채 결정한 다분히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업이었다。

5년간 한결같은 주민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있다。 보존할 가치가있다는것은 모두가 인정하나 보존돼야할 대상이 행정당국의 소유물이아닌 사유재산이란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보존해야할 건물이 어떤것인지, 세밀한 사전조사도없이 그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식으로선을 그어버린데서 처음부터시행착오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한옥군(群)이라고는 하지만 기실 全州시가 조사한 내용을보면 전체 8백24동중 한식암수기와집이 23동, 연와양기와집이 5백3개동, 시멘트양기와집이 68개동이며 기타지붕이 2백30개동으로 돼있어 외관상 고풍스런 한옥군이지만 진짜로 보존해야할 옛날 한옥은 한식 암수기와집 23동뿐이라고 볼수있다。

명승 寒碧樓와 全州川이감돌아 흐르고 호남지방물산의 집산지였던 南門시장을 끼고있는 이지역은 본래 좋은 주거환경이었으며 지금도 도심까지걸어서 5~15분이면 갈수있는 최적의주거지역이다。

그때문에 집값은 어느지역보다 높아야 할것이지만 보존지구에 묶이는 바람에 주거조건이 훨씬 떨어지는 全州川건너 檢岩洞보다도 값이 절반밖에 안된다。 대지 1백20평에 건평30평짜리를 1천7백50만원에 내놓았지만 처다보는 사람이 없다。 이보다 적은 대지50평, 건평18평짜리는 1천3백만원은 받아야겠다는게 2년전부터지만 사려는 사람이없어 주인은 전세를 놓고 이사가 버렸다。

집은 안팔리지만 전세방값은 다른곳보다 비싸다。 복덕방을하는 朴龍南씨(65·校洞92의5)는 집팔아본 기억은 좀체로 없는데 셋방구하는사람만 하루종일 따라다닌다고 푸념이다。 비좁은 한옥 1칸방이 1백50만원, 金岩洞등 신흥주택가에 가면 널찍한양옥방이라도 1백만원 이내에 얻어갈수 있는것과 비교하면 전세방값만 월등히 비싼곳이 돼버렸다。

순전히 서류상의 계획이지만 全州시가 보존지구로 지정하면서 구상한 내용을보면 이지역의 주택은 일체의 증개축을 허가하지않으며 자연석으로 보도를 깔고 가로등은 이조식초롱등, 전선이나전화도 지하로 매설하며 간혹있는 상점의 간판도 목제로 바꾸기로 했다。

잘하면 훌륭한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할수있는 계획이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탈이라는것。

이러저러한 불편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자 시측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증개축시 (규정에맞는)에는 보조를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보조로 증개축을 시도한집은 아직한채도 없으며 평균3~4만원씩 감면해주는 재산세혜택은 떨어진 집값에 비하면 편린에불과하다。

최근에는 全州시가 분석작업을 다시 시작。 1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보존지구를 다시 검토한다지만 아직 용역을 맡기지도않은 상태고 대용자체도 기존계획을 고수할것인지 목정건물로만 축소할것인지 아니면 다른방향으로 전환할것인지를 분석한다는 것이 실무자의 말이다。

『이지역을 아끼고 싶은것은 시보다 바로 주민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당연한 순서이며 주민이 보아도 보존가치가 없는 집이 더 많은데 주먹구구식으로 구역을 정해버린 처사는 행정의 횡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읍니다』 대대로 살아온 朴容洙씨(45)의 비판이 주민모두의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면 행정당국에는 아픈충고가 될 것이다。

區廳간부(光州)여관서 도박판

4명 職位해제 4명은 전출

部下여직원과 不倫도

【光州】光州市는 23일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빚은 시내 北區청 건축과장 임형신씨(42)와 시청하수과 시설계장 나연수씨(41)、시청도로과 박종석씨(42)、西區청 건축과 철거반장 안병화씨(40)등 공무원 4명을직위해제하고 北區청 청원경찰 손상철씨(43)를 파면조치했다。

시는 또 시청 구획정리계장 정종태씨(46)、北區청 민방위계장 이기문씨(45)、北區청 직원 김기현씨(40)、東區청 건축계장 김삼봉씨(35)등 4명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점을 들어 구청및 동사무소로 전출시켰다。

시에 따르면 임과장등 5명의 공무원은 지난1월부터 2월중순사이 시내 北區中興洞 Y여관등에서 속칭 삼봉 도박판을 벌여오다 시의 자체조사결과 적발, 이같은 인사조치를 당했다는것。

또 임과장과 전출된 정씨등 5명은 같은 청내의 부하여직원들과 불륜의 관계를맺은 혐의로 진정을 받는등 말썽을 빚어 이날 인사조치됐다。

한편 시는 이같은 진정에 따라 일부 남자공무원들과놀아난 것으로 진정받은 北區청 여직원 K、B、C양등 3명의 여직원을 이미 권고사직시켰는데 K양등은 이같은 진정이 무고한 것이라며 시청감사실당국에 계속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이같은 비행사실은 지난2월하순 무기명으로된 진정서가 북구청장앞으로배달돼와시청감사실이 자체감사를 벌이는과정에서 드러났다。 【聯合】

無認可신학교 고발

"모집취소" 不應 27개校

문교부는 23일 당국의지시를어기고 올해에도 신입생을 모집한 전국의 무인가 신학교 56개교중 감리교동부신학교(교장 朴大善)등 27개교를 경찰에 고발했다。

「監護」남발에 또 制動

大法합의부 "동일罪名 前科등만 참작해야"

같은죄명으로 3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받거나 형기합산이 5년이상이라하더라도 범죄사실에따른 구체적인 죄목이 같거나 유사하지않으면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관례가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兪泰興대법원장)는 23일 徐達昊피고인(43·서울龍山區漢江路3街)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및 보호감호청구사건 상고심에서 徐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徐피고인은 지난 67년3월4일부터 69년 7월30일까지 상해죄로, 77년 1월28일부터 77년11월20일까지 폭력죄로, 다시 79년5월부터 81년2월11일까지 폭력죄로 각각 복역한뒤 지난해 3월20일밤 동료 金모씨(40)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1심재판부는 상해죄와 폭력죄는 동종유사한 죄이고 형기합산이 5년이넘는다는 이유로 징역3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2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했었다。

2심재판부는『徐피고인의 상해죄는 폭행죄와 동종유사한죄로 볼수없다』고 밝히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준강도의 폭행또는협박행위와 이사건의 폭력에의한 상해행위는 신체침해행위라는점과 범죄의 유형등을 보면 동종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그러나 폭력행위라는 죄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名儀 변경전 자동차事故 原主人에 손해배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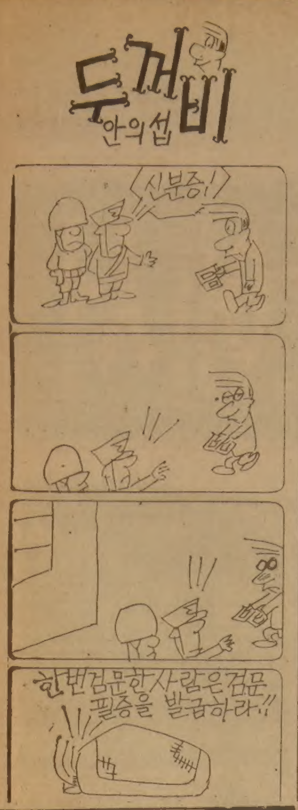
자동차를 판매한뒤 새주인이 사고를 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으면 원주인이 사고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합의15부(재판장 金瑠一부장판사)는 23일 韓東哲씨(서울 龍山區普光洞334)가 金대진씨(서울城東區杏堂洞324의25)등 2명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자동차등록원부상공동소유자인 金씨등 2명은韓씨에게 3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金씨등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픽업용달차를 지난79년1월 李모씨에게 1백70만원에 팔기로 계약, 계약금및 중도금 1백만원을 받고 잔금70만원은 1개월뒤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이전에 필요한서류를 받은후 상환하기로 약정한뒤 차를 李씨에게 넘겨줬었다。

차를 넘겨받은 李씨는 인수한날밤 차를 몰다 韓東哲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는데 韓씨는 李씨가 명의이전이돼있지 않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할수없다고 하자 원소유주들인 金씨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차를 넘겨받은 李씨가 비록 사고를 냈더라도 명의이전이돼있지 않기때문에 차를 판金씨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82

카빈銃 부속품 1백여點 발견

【原州】23일상오 6시30분께 강원 原州市平原洞8통3반 전영화씨집앞길 쓰레기수거용 빈리어카에 카빈M1소총 총기부속품 1백여점이 종이상자에 담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방범대원 곽노혁씨(35·中央洞 파출소 소속)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발견된 총기부속품은 카빈공이뭉치 19점, M1방아뭉치5점, 가늠자뭉치 19점등으로비교적깨끗한편이었고76년에 발행된 신문지에포장돼 낡은종이상자에 담겨있었다。

발견된장소는 쓰레기 수거용 리어카를 보관해두는 곳인데 경찰은 군수사기관과 합동으로수사에나섰다。 【聯合】

京春國道서 산사태

40톤 바위덩이굴러

새벽 出勤길 4시간不通

23일 새벽4시30분께 강원 春城郡西面 德斗院3里앞 경춘국도에서 산사태로 40톤가량의 바위덩이가 굴러내려 4시간동안 길이막혔다。 이날 사고는 해빙기를맞아 얼었던 산기슭이 녹으면서 일어났는데 이사고로 서울—春川간 직행버스등의 발이묶여 승객들이 기차를이용하거나 돌아가기도 했다。 경찰과 春城군당국은 洪川도로 관리사무소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중장비들을 동원, 상오8시30분께 완전복구시켰다。

【讀者제보=23일상오 8시15분 張啓文기자찍음】

大邱는 초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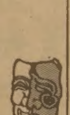
이틀째 20도계속

【大邱】대구지방은 23일 최고기온이 예년보다 7도높은 섭씨20도로 이틀째 초여름같이 더운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聯合】

「保手」를 거부한 敎師

腐敗추방성금「11만5천원整」

「良心의 빚」갚은 良心의 鮮度



어느날 사회정화위원회에 익명의 敎師로부터 액면11만5천원짜리 자기앞수표1장이 우송되었다。 수표와 함께 부쳐온 사연인즉, 이 敎師는 지난학기에 한학부형으로부터「아무조건없는 인사」로써 이돈을 받았는데,「小職의 가정형편도어렵지만 새학기를 맞아 심기일전의 각오로 이돈을 정화위에 보내니, 부패추방을 위한 교육성금으로 써달라」는 것이었다。

이름도 재직학교도 안밝히고있어 수표의 발송인이 누구인지 알수도 없게돼있지만 굳이 신원을 알아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는 보나마나 박봉에 허덕이는 20여만 교직자중 한사람 일테고 새학기가 됐다고 학부형들은 인사를 겸한 성의표시로 조그만 봉투를 그에게 전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 교사는 챙겨도 될법해 보이는 이「눈먼 돈」을 거부한 것이다。

「사회정화」의 깃발을 들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이래로 국민들은신문이나 TV스크린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손바닥을 보아왔다。「절대로 돈을받지 않겠다」는 뜻으로손바닥을펴보이며 국민들에게 선서를 하는것인데, 그손바닥으로 다시돈을받은 사실이 들통나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었다。

손바닥을 펴보이고 선서를하고나서도「눈먼돈」을 보면 또다시 손바닥이 펴지는 세태는 돈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새삼 일깨운다。

정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주변에서는「세상이 각박해졌다」「으시시하고 썰렁하다」「옛날같지않다」는식의 푸념이 자주들리고있다。「눈먼돈」이 굴러다니던 지나간 세월에대한 은근한 향수가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수록 이 익명교사의 행위는 돋보인다。「良心의 빚」을 갚기위해 받은 돈을 내놓는다는 그 良心의 선도(鮮度)가 부럽다。

그가 편지에서 밝힌「小職의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법 하다。「눈먼돈」이 굴러다니는 사회는 일부계층에는「아늑 하고 풍성한」세상일는지 몰라도 전체에겐 어두운 측면이된다。 공직자를 눈먼돈으로 유혹하지않는 시민정신이 꽃을 피우고 그래서 모든돈이 동전 한닢까지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익명 교사의 용기는 우리모두의 용기가 돼야한다。 【金薰기자】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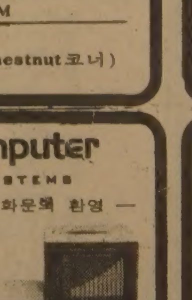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Temperance St. / King / Bay / Yon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전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필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W.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W. ☎ : 535－4441 디자이너 MR.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W.(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E. Tor.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항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TOR.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주보 ●명함 ●청첩장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열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8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E.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이경국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W, SUIT.206
전화: 766－5639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E.(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약 "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태권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V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크레딧·카드로 광고비를
지불하셔도 됩니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분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킹스톤×미드랜드)
전화:266－6355

입주해서 할머니 보살필 한국여성 구함
전화:231－7991 Mrs. Kim

정원사 구함. 신체건장한 남자로써 영어나 일본어를 필요로 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298－3316 Mrs.가라사와

지렁이 사업은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 있음.(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 있음. 전화: 655－6543 (Mr. Lee)

여자캐쉬어 유경험자 구함
(동부지역) 전화: 465－3132 Mrs. 유

"급 구"
애기 보아주실 할머니 구함.(서부지역)
전화: 241－4755

피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중고차를사서 피해를 입은분은 급히 연락바람.
☎ : 928－0556(Mr. Kim)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구함.
출퇴근도 가능
☎ : 7 4 2－0434

구 혼

배우자 구함. 본인은 현재 캐나다 방문중인 현 39세의 건강한 독신남자임.
연락처:537－0238 Mr.Kim

매매및 양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결된 2층 건물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7개의 방, 4개의 침실 그리고 차도가 딸려있음.
좋은 상업지역, (PAPE × DANFORTH)
수퍼마켓 (WOODBINE × DANFORTH)
한가족이 하기에 꼭 적합한 사업입니다.
아스킹: $35,000 주매상: $7,500
OPEN HOUR: 6 DAYS/WEEK 9a.m. － 6p.m.
CALL JOHN GEORGAKOPOULOS 전화: 493－6250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급 매"(아파트 밀집지역)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7,500 ☎ : 248－0823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5800(최저) 아스킹 : $65,000(캐쉬)＋스탁. St. Clair×크리스티 ☎ : 652－1067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과일점이나 기프트 샾을 하기에 좋은 더프린 근처 1784 Eglinton Ave. W. 에 위치한 건물팝니다.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직접 만드는 델리카티슨(빵집) 매매
새장비 구입,워크－인 쿨러,바튼지역임.(오릴리아)
아스킹:$59,000＋스탁
전화:862－0788 교환 53 Mr.Don Whitfield,
A.E.Lepage(Ont.) Ltd.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장래성이 확실하며 급성장이 기대되는 새로 지은 Mall안에 Convience Store매매. 모든 장비 갖춰 있음.
☎ : 267－8747 Mr. Sherman

40여개의 가구달린 방을 가진 최고급 ADULT 빌딩
총년수입: $215,000 다운페이: $200,000
전화: 635－6847

타 사업관계로 선물쎈타 급매
전화: 535－2143 Mrs. Le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6시 ☎ : 783－0134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생선가게 팝니다.(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상류 미시사가 지역 (PRIVATE SALE)
4 베드룸, 2730 Sq.ft.의 2층집.
FIRE PLACE 및 견고한(돌) 건축.
그 외 많은 좋은 조건의 EXTRA
문의: 820－0748 피 터

가정의 벗 한국일보

하우스 렌트

2베드룸 (Flat) 세놓음. (6시이후연락바람)
$350(월)＋가스＋하이드로. Stove냉장고 있음.
크리스티 · 블루어 써브웨이중간☎851－1314

독신자에 한함. 월 $190
가구 갖춰 있음(St. Clair W. 근방)
☎ : 763－3289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75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무역진흥공사 : 977－8784
●K A L : 862－8250
●코리아타운 번영회 : 532－272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크로스웨이 꽃집 (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전화: (B) 535－1355 (R) 757－0905 님파 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흘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북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기 타

인생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Lady "M"을 찾아 오세요.
1344 ST. CLAIR. W. 전화: 652－1495

＊ 한국일보 안내광고 ＊